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글로벌지역학석사학위논문

멕시코 여성운동의 변화
-네트워크화된 운동 전략을 중심으로-



2024년 2월

국립부경대학교대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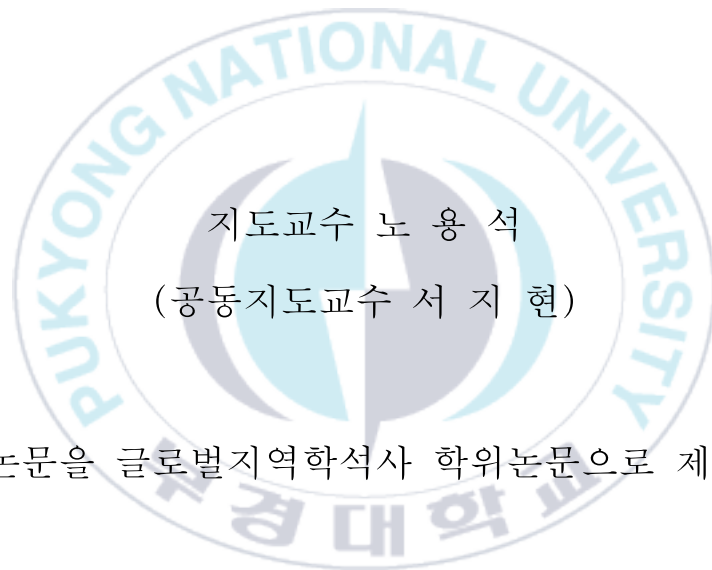
글로벌지역학과

김은유

글로벌지역학석사학위논문

멕시코 여성운동의 변화

-네트워크화된 운동 전략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노 용 석
(공동지도교수 서 지 현)

이 논문을 글로벌지역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4년 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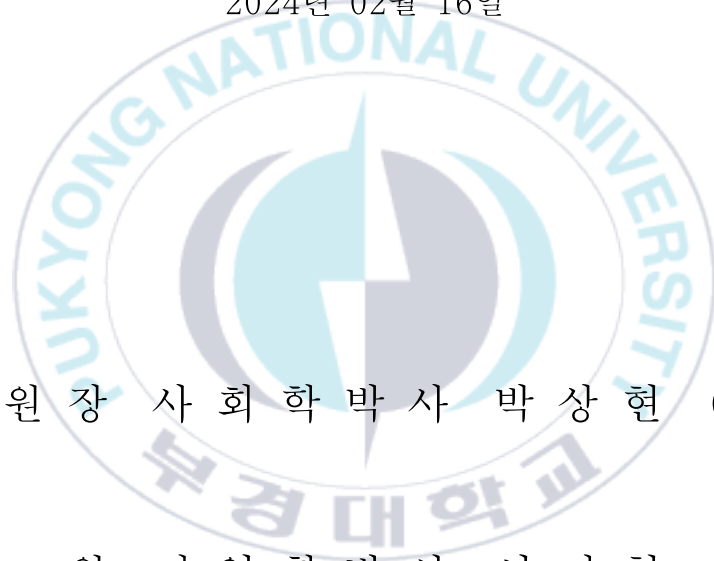
국립부경대학교대학원

글로벌지역학과

김은유

김온유의 글로벌지역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4년 02월 16일



위원장 사회학박사 박상현 (인)

위원 지역학박사 서지현 (인)

위원 인류학박사 노용석 (인)

목 차

표 목차	iv
그림 목차	v
논문 요약	vi
I . 서론	1
1. 연구배경 및 목적	1
2. 조사 방법과 과정	4
3. 논문의 구성	6
II . 이론적 배경	7
1. 네트워크화된 사회운동(networked movement)	7
2. 정동(affects) 이론	11
3. 연구 분석틀	13
III . 멕시코 여성운동의 전개	15

1. 멕시코 여성의 처지와 위계화	15
1) 마리아니스모	15
2) 여성혐오 폭력 심화	18
3) 여성 위계에 따른 인권침해 차별화	20
2. 멕시코 여성운동의 역사	23
IV. 멕시코 여성운동에서의 네트워크화된 운동 전략	27
1. 멕시코 여성운동 전략 양상	28
1) 기존 운동 전략	28
2) 네트워크화된 운동 전략	30
2. 네트워크화된 운동 전략의 효과	38
1) 멕시코 여성 처지의 개선	38
2) 감정적 응집과 초국적 연대	41
3) 새로운 의제와 직접 행동 동원	48
3. 한계	57

V. 결론	61
참고문헌	64
Abstract	72
부록	74

키워드: 여성운동, 소셜 미디어 플랫폼, 멕시코, networked mov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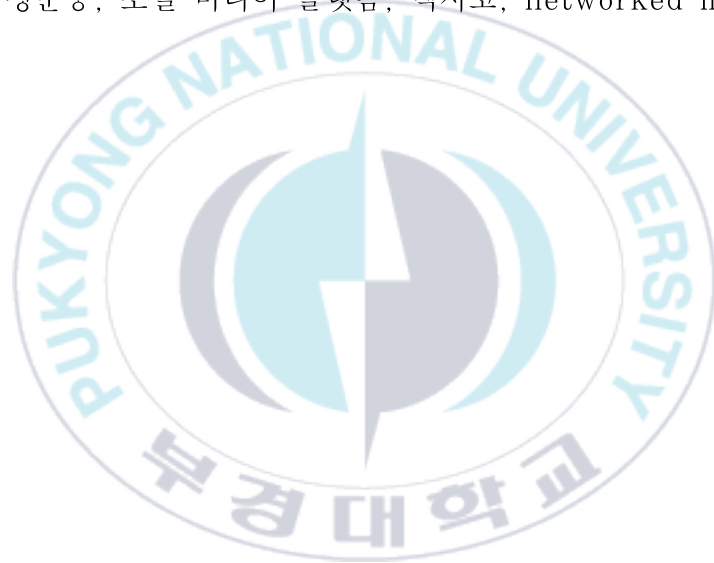


표 목차

표 1. OECD 가족 데이터 베이스, 15세 이상 인구의 젠더에 따른 시간활 용, 1999-2012/2013a.	17
표2. 멕시코 여성운동의 주요 해시태그 운동	32



그림 목차

그림 1. 멕시코 여성운동 전략 변화 13



멕시코 여성운동의 변화
-네트워크화된 운동 전략을 중심으로-

김은유

부경대학교 대학원 글로벌지역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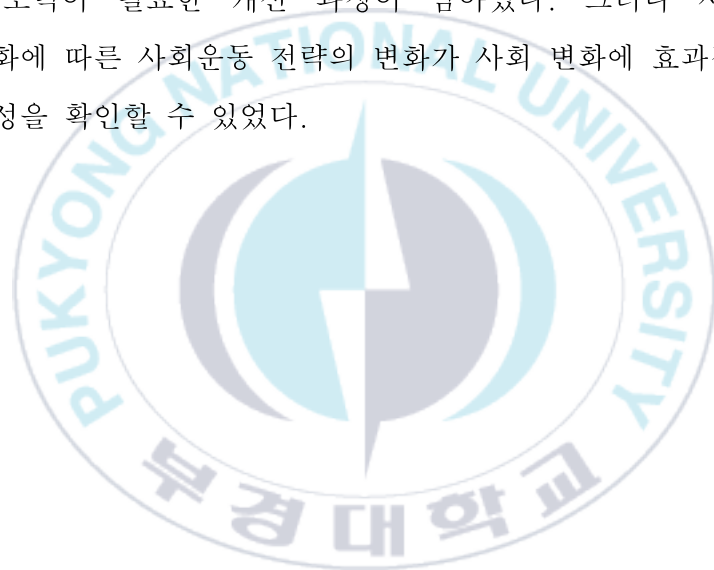
요 약

멕시코의 여성운동은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지속적인 노력으로 인해 정치적으로는 여성 대표성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문화적 문제는 여전히 산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멕시코 여성이 가지는 특징과 관련된다. 멕시코 여성운동은 멕시코 여성의 특성인 가톨릭 문화 종속과 여성 위계화의 영향을 받으며 발전해왔다. 그 과정에서 과거에는 전통적 매체를 통해 일부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계몽이 목적이었으나 최근에는 소셜 미디어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여러 조직의 연대를 목적으로 한다. 2016년 이후 폭발적인 해시태그 운동들을 통해 네트워크화된 전략이 국제 연대를 형성했고, 멕시코에서도 내에서도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을 활용하여 여성들이 성적 폭력 등을 언급하고 공유하며 초위계적 연대를 이루었다.

이를 통해 멕시코 여성운동은 정동 소외자들 간의 감정적 응집과 실제 세계에서 직접 행동의 동원을 성취했다.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는 네트워크화된 운동 전략은 신속한 정보의 전달성과 초지역, 초시간성을 가지고 여성 논의에 있어 새로운 정치적 공간을 제공한다. 그러나 네트워크화된 운동 방식은 목표 설정이 어려워 충돌과 감정의 폭발을 야기할 수 있으며, 잘못된 정보와 반발 의견의 확산이 발생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다른 운동에서도 지적되는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운동 전략과 그 성취로 인해 멕시코는 낙태 비범죄화와 여성혐오 폭력에 대한 법률적 개선으로 다가가고 있다.

본 논문은 멕시코 여성운동의 역사와 멕시코 여성의 처지를 돌아보고 이를 통해 사회운동의 전략 변화가 사회에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멕시코 여성운동이 전략의 변화로 얻어낸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적 인식의 개선, 법률적 재정비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개선 과정이 남아있다. 그러나 사회적 소통 매체의 변화에 따른 사회운동 전략의 변화가 사회 변화에 효과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여성운동은 국제적인 맥락에서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각 국가의 고유한 역사, 문화, 정치적 맥락에 따라 여성운동의 목표와 전략이 상이하며, 이에 따라 다양한 양상이 나타난다. 여성운동은 사회운동과 개혁의 대상으로 중요한 영역이지만 여성들이 스스로 개혁에 참여하기에는 제약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의 사회운동은 발전된 과학기술과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는 전략을 구사하면서 소수자들의 목소리가 넓은 영역으로 전달되고 다양한 사람들이 사회운동에 결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처럼 사회운동 참여 경로가 다양해지기 시작하면서 여성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낼 수 있게 되었다.

최근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여성운동이 활성화되어 사회적 변화를 이끌고 있다. 라틴아메리카는 300년 이상 유럽 식민지배를 겪었고, 이후 사회개혁과 혁명의 과정에서 문벌귀족(Caudillo)을 중심으로 한 남성 중심 사회 체제가 형성되었으며,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현재까지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사회체제는 라틴아메리카의 뿌리 깊은 가톨릭 문화와 적극적으로 결합되어 또 다른 남성 중심적 특성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사회구조 특성으로 인해 라틴아메리카의 여성운동은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사회운동 전략의 다양화는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는 계기를 형성하였다.

멕시코 여성운동은 오랜 기간 동안 여성 문제를 해결하고 구조적인 남성 중심 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차원에서의 노력을 해왔으나

여전히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다. 정치적 측면에서 볼 때, 2021년 1월 기준 의회 대표성은 48.2%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UN Women, 2021; 정호윤, 2022, 82에서 재인용), 2024년 대선 유력 후보들 가운데 상당수가 모두 여성인 것을 고려한다면 정치권에서의 여성 역량은 분명히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 측면에서의 여성 역량의 강화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2023년 글로벌 성 격차 보고서(Global Gender Gap Report)는 전체 순위¹에서 멕시코의 성격차가 전체 146개국 중 33위로 상당히 높게 위치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정치적 측면에서의 여성 진출이 높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며 전반적인 멕시코의 여성인권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 평등과 사회적 평등의 격차는 멕시코 사회를 통해서도 체감할 수 있다. 칠레 여론조사기구 라티노바로메트로(Latinobarometro, 2020)는 멕시코 여성이 빈곤층과 원주민 다음으로 가장 많이 차별받는 집단으로 인식된다고 발표하였다. 일부 조사에서 여성인권에 대한 수치들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지만 여전히 멕시코 여성들의 인권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최근 멕시코 여성운동은 새로운 운동 전략 활용과 함께 임금 불평등, 가정 폭력, 성평등 교육, 정치적 참여 등 다양한 이슈에서 여성인권을 긴장하기 위해 전통적인 운동 방식 이외에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바라볼 때 멕시코를 비롯한 라틴아메리카 여성운동에서 운동 전략의 다양화는 주목할만한 현상이며, 이러한 방법의 다양화가 어떤 변화된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하여 관찰하고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¹ 경제, 교육, 보건, 정치 모든 분야를 평가한 전체 순위이다. 정치적 대표성 부문은 15위로 높은 순위를 차지하나 경제적 참여와 기회 부문은 110위로 낮은 순위에 머물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멕시코 여성운동의 사례를 중심으로 네트워크화된 사회운동이 여성운동의 활성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의 밝히고자 하는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논문에서는 멕시코 여성운동의 역사적 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것은 멕시코에서 여성운동이 발생한 배경과 그 위상을 보여줄 수 있고, 멕시코 사례를 통해 대략적인 라틴아메리카 여성운동의 경향을 고찰할 수 있다.

둘째, 시기별 멕시코 여성운동을 정리하면서, 각 시기 여성운동의 특징들이 어떠한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멕시코 여성운동의 시작은 약 100여 년 전부터 시작되었으나 역사적 시기를 거치면서 다양한 운동 경향을 보여왔다. 각 시기별 여성운동의 역사를 정리하는 것은 여성운동적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멕시코의 사회문화사를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새롭게 조명해 볼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셋째, 온라인 플랫폼 등을 활용한 최근의 네트워크화된 운동 전략이 여성운동에서 어떤 효과와 사회적 특성을 발현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새로운 운동 전략이 어떻게 도입되었으며 이들이 가진 장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결국 여성운동이 가진 목표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다주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2. 조사 방법과 과정

이 논문의 조사는 각종 문헌연구와 현지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문헌연구의 경우 멕시코의 여성운동 역사를 다룬 논문, 멕시코의 최근 여성운동 경향을 다룬 현지 서적, 멕시코 통계청의 보고서 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멕시코 여성운동 역사에서 어떠한 운동 전략의 변동이 있었는지를 고찰하였다. 문헌연구 이후 실제 현장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운동 전략이 참여자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연구하기 위해 현지 조사 및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현지조사는 2023년 8월 11일부터 2023년 9월 3일까지 23일 간 멕시코시티에서 진행하였다.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멕시코 여성운동 단체의 주요 활동가와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했다. 인터뷰 대상자는 멕시코 사회운동 단체 중 특히 여성운동 단체 구성원으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비롯한 네트워크화된 운동 전략을 사용하는 사람들로 선정했다. 인터뷰를 위해 현지조사 기간 이전에 본 논문의 전반적인 방향을 설명하고 인터뷰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내어 인터뷰 일정을 확정하였다. 인터뷰 대상자들에게 멕시코 여성운동 전반과 다루고 있는 의제에 대하여 가지는 생각,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네트워크화된 운동 전략의 활용에 대한 의견 등을 질문하였다. 여성운동의 기획과 진행에서 새로운 전략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단순 참여자가 아닌 운동 단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인터뷰 대상자들은 총 5명으로 4개 기관에서 여성운동 및 사회운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멕시코의 여성운동에서 인터넷 기반의 온라인 플랫폼이 사용된다는 점에 동의한다. 인터뷰를 진행하기 전 대략적인 질문지를 작성하여 대상자들에게 제공하였다. 질문지는 인터뷰 대상자의 기본 정보에 대한 질문과 멕시코 여성운동의 이전과 현재의 운동 전략,

네트워크화된 운동 전략의 영향, 멕시코 여성운동의 전망 등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²

또한 전반적인 멕시코 시민들이 여성운동과 네트워크화된 운동 방식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서는 변화한 운동 전략이 시민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영향을 미치는지를 질문하고자 하였다. 설문 문항은 객관식과 주관식 문항으로 구성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참여자의 의견을 수집하려 했다. 또한, 응답자를 구별하기 위해 성명 또는 가명을 요구하고, 연령 및 성별 정보를 수집하였다. 설문조사 문항은 간단한 개인 정보와 총 6개의 서술형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1번부터 5번까지 멕시코 여성운동에서의 네트워크 전략에 대하여 묻는 필수 항목들과 추가적으로 전달하고 싶은 의견을 받을 수 있는 6번의 선택 항목을 만들었다. 총 21명의 멕시코인이 참여했으며 참여인원 중 90.5%가 여성이고 61.9%가 16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이었다.³

² 인터뷰 대상자들에 대한 정보와 인터뷰에 사용한 질문지는 부록에 수록되었다. 질문지와 동일한 내용으로만 인터뷰를 진행하지는 않았으나 원활한 인터뷰를 위해 미리 제공하였음을 밝힌다.

³ 설문조사에 사용한 질문지는 부록에 수록되었다.

3. 논문의 구성

본 연구는 6장으로 구성되었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먼저, 제1장은 연구배경과 목적, 그리고 연구를 위한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한다.

제2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멕시코 여성운동을 살펴볼 때 사용하는 네트워크화된 사회운동과 정동 이론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그리고 연구 분석틀을 통해 이론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설명한다.

제3장은 멕시코 여성운동이 어떻게 전개되어왔는지를 설명한다. 우선 멕시코의 여성들이 어떠한 사회문화적 맥락을 가지고 있는지를 기술한다.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멕시코 혁명 시기부터 현대까지 각각 다른 의제와 방식으로 진행해온 여성운동 연대기를 살펴볼 것이다.

제4장은 멕시코 여성운동에서 어떠한 운동 전략을 활용하는지를 서술한다. 이전에 멕시코 여성운동에서 주로 활용된 운동 전략들을 서술하고 2010년대 이후에 네트워크화된 운동 전략이 어떻게 도입되고 확산되어 왔는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네트워크화된 운동 전략이 멕시코 여성운동에 미친 효과와 그 한계를 설명한다.

제5장 결론에서는 멕시코 여성운동이 어떠한 역사를 가지고 발전해왔는지를 요약하고 최근의 변화와 개선에 네트워크화된 운동 전략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정리한다. 그리고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한 네트워크화된 운동 전략의 의미를 시사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네트워크화된 사회운동(networked movement)⁴

네트워크화된 사회운동은 21세기 이후 출현한 사회운동의 새로운 유형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네트워크화된 사회운동 이전에도 다양한 형태의 사회운동이 있었다. 이러한 운동들은 주로 특정 계층이나 단체를 중심으로 주도되는 중앙 집중화된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예를 들어, 1950년대 미국 시민권 운동의 경우 마틴 루터 킹(Martin Luther King Jr.)을 비롯한 흑인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되었고, 19세기 후반부터 지속되어온 노동 운동에서는 다양한 국가의 노동조합들과 그 연합 조직이 중심이 되었다.

반면 네트워크화된 사회운동은 주로 디지털 기술과 소셜 미디어를 통해 조직이 확산되고 운동이 조직되며 중앙 집중화된 주도 세력 없이 운동 참여자들 간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특성을 가진다. 네트워크화된 사회운동 내에서는 주로 소셜 미디어가 활발하게 활용되며, 참여자들이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며 신속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이루어낸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운동 내에서는 논의하는 문제에 대한 정보와 책임이 운동의 참여자들에게 고르게 분산될 수 있다.

네트워크화된 사회운동에 대한 이론적 경향은 크게 세 관점으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사회 네트워크 이론 관점(Social Network Theory)이

⁴ 마누엘 카스텔의 저서를 번역한 “분노와 희망의 네트워크(김양욱 역)”에서는 이를 ‘네트워크된 운동’으로 번역하고 있으나 네트워크가 운동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고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이를 ‘네트워크화된 운동’으로 표기한다.

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진 학자로는 스페인의 사회학자 마누엘 카스텔(Manuel Castells)이 있다. 그는 『분노와 희망의 네트워크(2015)』를 통해 네트워크화된 운동을 사회운동의 주체와 그들 사이의 관계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통해 이해하려 한다. 특히 소셜 미디어를 통한 정보의 전파와 활동의 확산을 강조한다. 두 번째 관점은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 관점(Actor-Network Theory)이다. 이들은 네트워크화된 운동을 인간뿐 아니라 비인간 행위자 간의 연결을 통해 바라본다. 인간과 기술, 미디어, 제도와 같은 비인간 행위자들은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의존성을 가지고 연결된다고 해석하며 운동이 네트워크 안에서 어떻게 형성 및 발전하는지를 살펴본다. 프랑스의 과학기술사회학자 미셸 칼롱(Michel Callon)과 브뤼노 라투르(Bruno Latour)가 『인간·사물·동맹(2018)』 등의 저작을 통해 이론을 발전시켰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가 사회운동에 미치는 영향을 비평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있다. 미국의 문명 비평가 닐 포스트먼(Neil Postman) 등이 주요 학자로 이들은 디지털 기술과 미디어가 가진 권력 구조에 초점을 맞추어 네트워크의 흐름을 해석한다.

본 논문에서는 소셜 미디어를 중심으로 디지털 기술과 네트워크가 현대 사회와 사회운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집중하여 사회 네트워크 이론의 관점에서 네트워크화된 사회운동을 살펴본다. 특히 네트워크화된 사회운동이 인터넷상에서만 머물지 않고 사이버 공간과 현실 공간을 연결한다는 점에 공감하여 마누엘 카스텔의 네트워크 사회 이론을 통해 이를 해석한다. 마누엘 카스텔에 따르면 사회운동이 소셜 미디어 중심의 네트워크화된 사회운동으로 변화하며 소수자의 발언권이 확장되고 정보의 불균등이 다소 개선되었다고 주장한다. 더 빠른 인터넷과 다양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등장으로 신속한 정보 전달이 가능해지고 집회의 조직

방식 또한 달라져왔다는 것이다(Castells, 2015; 장석준, 2016, 67에서 재인용). 마누엘 카스텔(2015)은 튀니지 혁명, 이집트 혁명, 월가 점령 운동을 통해 사이버 행동주의(cyber activism)의 중요성을 지적한다.

사회운동이 효과적으로 전개되기 위해서는 이에 참여할 잠재적 인원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소셜 미디어를 통한 네트워크의 구성은 효율적으로 사회운동에 참여할 인원을 확보할 수 있게 하고 그들 사이에 특별한 집단 정체성을 만들고 공유할 수 있게 해준다(Diani, 2000). 다양한 기기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여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 전파력도 증가한다. 그래서 소셜 네트워크는 네트워크 사회에서 여러 아젠다를 전달하고 확산하는 통로로 이용되어왔다.

마누엘 카스텔 외에도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사회운동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들은 이 방식이 개인이 더 적은 비용과 노력을 통해 운동에 참여할 수 있게 도울 수 있어 기존에 사회운동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참여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 참여 인원의 양적 증가를 넘어 그들이 사회운동에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의미 있는 참여를 도울 것으로 예측한다(김용철, 2008). 즉, 해시태그 등을 활용하는 인터넷상의 사회운동 참여가 결국 물리적 공간으로의 참여로 바뀔 수 있을 것을 예상하는 것이다. 디온 알제리(Dion Algeri)의 경우 느슨한 유대의 가치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인터넷상에서 쌍방으로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대화 자체가 그 가치를 가진다고 말한다(이원태, 2010).

물론 이러한 방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인터넷 매개의 상호소통이 연대적 정체성을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의심이

존재한다. 인터넷 플랫폼 안에서의 사회운동이 정보격차 등의 문제로 집단 간 참여의 격차를 더 많이 만들 가능성이 있으며 너무 쉬운 참여로 인해 공동체의 의미가 희석되고 대중의 관심이 줄어들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결국 문제 해결에 참여해야 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책임 의식이 약화될 것을 우려되는 것이다(김용철, 2008). 또한 미국의 역사학자이자 비평가인 말콤 글래드웰 (Malcolm Gladwell)은 소셜 네트워크상의 클릭을 통한 유대는 실제 운동으로 이어질 수 없다고 이야기하며, 아닐 대쉬(Anil Dash)는 소셜 네트워크 운동 전략이 실제의 행동보다 사회 변동을 일으키기 어렵다고 말한다(이원태, 2010, 랜디 쇼우, 이준우, 송누리 역, 2019).

사회운동의 새로운 동향은 여성운동 사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네트워크화된 사회운동 방식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강화하며 국제적 연대와 지역사회 참여를 촉진할 수 있어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지고 비교적 적은 권력을 가진 집단인 여성들이 여성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여성들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이 높아지며 여성운동은 여성의 생존권 추구를 넘어 인종, 성 정체성, 성적 취향 같은 이슈들을 다룬다. 여성운동의 시각이 다양한 삶의 현실을 고려하며 확장되고 그 방법의 변화도 두드러지는데 대표적으로 해시태그 여성운동을 들 수 있다. 한국에서도 인터넷을 통한 여성운동의 등장이 여성이 정치 참여에 가시성을 얻을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소셜 네트워크나 인터넷 카페 등 새로운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공동체 형성이 있다(김수아, 2012, 204). 인터넷 공간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같이 여성들이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Sreberny, 2015, 359-360).

2. 정동(affects) 이론

정동(情動)이란 사전적으로 '일시적으로 급격히 일어나는 감정. 진행 중인 사고 과정이 멎게 되거나 신체 변화가 뒤따르는 강렬한 감정 상태'를 뜻한다. 정동은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여러 학자들이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데 보통 감정적으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행동을 일으키기도 하고 신체적 접촉을 통해 발생하는 관계적 현상(이항우, 2022, 272)으로 해석된다.

영국 출신의 문화 비평가 사라 아메드(Sara Ahmed)는 정동을 사회적 맥락에서 바라본다. 정동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한 사회가 같은 방향과 지향성을 가지며 사회적으로 공유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정동은 개인 간, 집단 간, 문화 간에 전이되며 권력의 지배와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특히 행복에 대하여 공유하는 정서를 중요하게 본다. 이러한 정동에서 소외되는 이들을 정동 소외자(affect aliens)라고 말하는데 예를 들어 '흥을 깨뜨리는 페미니스트 (feminist kill-joys), 불행한 퀴어들, 우울한 이주자들' 같은 주류 사회 기준에서의 타자들이 그들이다. 이들이 소외되는 이유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공유하고 정동하는 사회적으로 정해진 행복의 기준을 거부하고 그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특히 흥을 깨뜨리는 페미니스트들은 사회적인 성역에 얽매이지 않고 여성의 권리와 성평등을 주장하는 여성운동 참여자들로 여성운동 내부의 문제점들에도 불만을 가져 다른 페미니스트들의 흥을 깨기도 한다(최성희 외 역, 2015). 즉, 소외자들의 소외자가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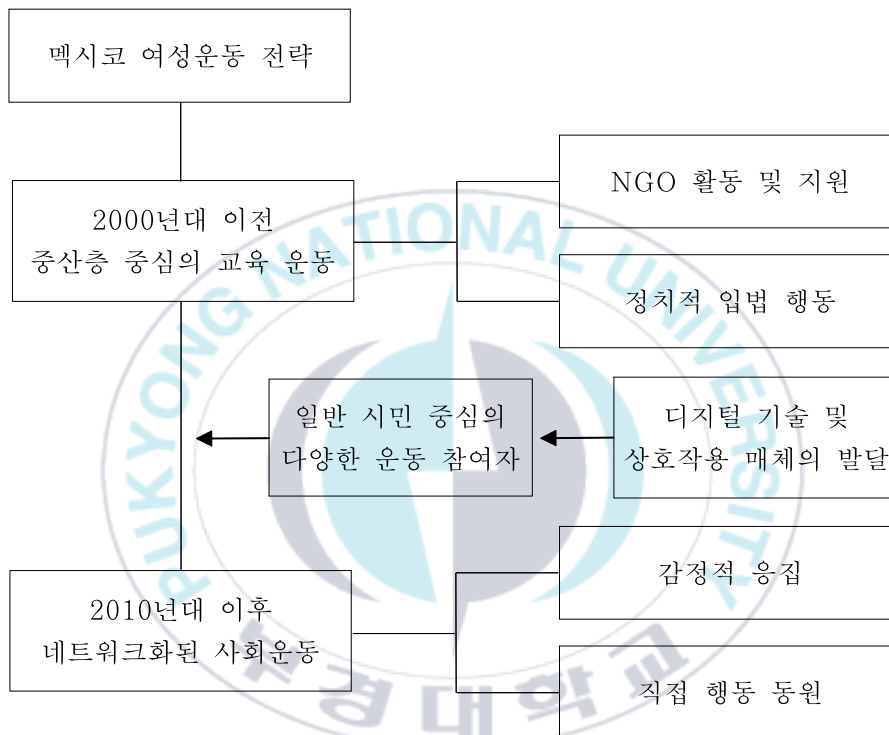
인터넷 공간은 이러한 정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좋은 공간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인터넷의 상용화와 모바일 네트워킹 기기의 대규모

보급이 컴퓨팅 능력과 결합하여 네트워크 효과를 현대 사회에서 현저하게 부각시켰다. 소셜 미디어는 사용자들이 연결과 사귄, 자기 표출, 인정 획득을 통해 상호작용하고 소통하는 플랫폼이다. 소셜 미디어에서 사용자들은 모여들기, 만들기, 평가하기, 분류하기 등 다양한 모방 행동을 통해 서로를 보유하고 상호작용한다(이항우, 2022. 281-293). 그리고 인터넷 공간이 가진 상대적인 익명성 때문에 사용자들은 현실 세계에서 논의하기 어려운 주제에 대한 감정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시공간적으로 제한이 적기 때문에 특정 주제에 대한 커뮤니티를 형성하기 쉬워서 비슷한 감정을 가진 사람들 간의 정동이 만들어지기도 쉽다. 소셜 미디어를 비롯한 인터넷 공간은 사람들 간의 접촉이 일어나고 언어와 행동이 서로 모방 즉, 전이되기 쉬운 공간이기 때문에 정동이 더욱 자유롭고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플랫폼이 된다.

그러므로 소셜 미디어를 통한 네트워크를 분석할 때 정동의 역할을 무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소셜 미디어를 통해 네트워크화된 운동 전략을 분석하고 연구할 때 참여자들 간의 정동 현상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정동은 감정, 경험, 정서 등을 포함한 개인의 내면세계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인 이슈를 파악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남성 중심의 사회적 문화 속에서 이에 대한 비판을 표현하며 온/오프라인을 순환하는 정동 네트워크를 만들어 내는 것은 페미니즘에 대한 이슈를 대중화시키고 사회 변동의 흐름을 조성할 수 있다. 정동은 여성운동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여성들의 정치적 실천과 사회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되는 것이다(유현미, 2022. 6-11).

3. 연구 분석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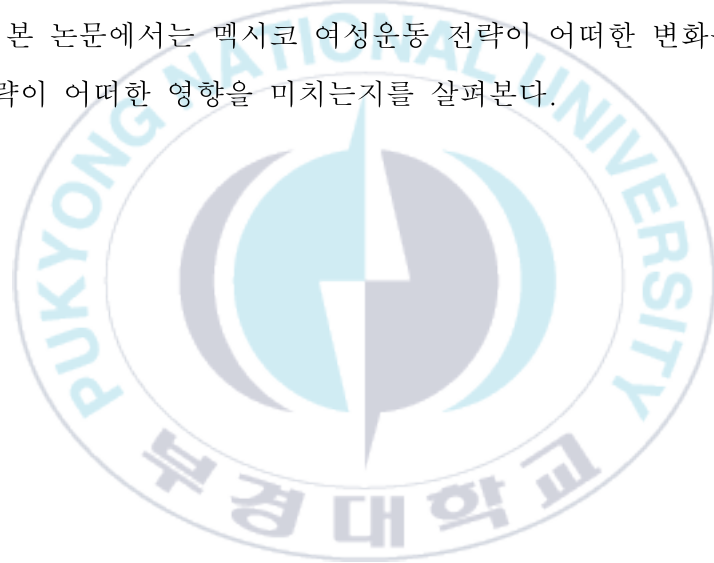
〈그림 1〉 멕시코 여성운동 전략 변화



출처: 연구자 작성

본 연구에서는 멕시코 여성운동에서 네트워크화된 운동 전략이 어떻게 등장하고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그림에서 실선은 각 요소 간의 연결을 나타내며 화살표의 방향은 영향을 미치는 방향을 의미한다. 위 그림을 통해 시기에 따른 멕시코의 여성운동의 전략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2000년대 이전의 중산층 중심의 교육 운동은 대면교육과 발간물 같은 전통 매체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 시기에는 주로 NGO 활동을 통한 일반 민중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지며 정치적인 압력을 행사하여 입법을 유도하는 전략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사회운동에의 새로운 기술과 매체의 등장으로 다양한 시민들이 운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며 멕시코 여성운동 또한 새로운 전략을 가지게 되었다. 2010년대 이후 멕시코 여성운동에 네트워크화된 운동 전략이 도입 및 확장되면서 참여자들 간에 감정적인 응집이 형성되고 직접 행동을 동원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본 논문에서는 멕시코 여성운동 전략이 어떠한 변화를 거쳐왔고 새로운 전략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다.



Ⅲ. 멕시코 여성운동의 전개

3장에서는 멕시코 여성운동의 역사를 살펴본다. 각 시기별로 여성운동이 요구하는 의제가 무엇이고, 어떠한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는지, 어떠한 성과를 얻었는지 살펴본다.

1. 멕시코 여성의 처지와 위계화

1) 마리아니스모

멕시코 여성운동을 주도하는 근본적인 불평등 요인은 여성들이 겪는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측면에서의 빈곤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멕시코 여성들의 빈곤에는 종교적 배경이 많은 영향을 끼친다. 멕시코는 대표적인 가톨릭 국가로 가톨릭 문화가 사회 구조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IMF, 2018; 홍태희, 2019에서 재인용). 최근에는 개신교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CID 깐럽(La Consultoria Interdisciplinaria en Desarrollo)의 2010년대 라틴아메리카 로마가톨릭교 인구 분포에 따르면 멕시코 인구의 82.9%가 가톨릭 신자로서 여전히 지배적인 비율을 차지한다. 이 문화적 배경은 여전히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 제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톨릭은 멕시코 사회문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왔으나, 여성적 측면에서 볼 때 부정적 측면도 있다. 대표적인 부정적 관념으로는 '마리아니스모(Marianismo)'가 있다. 마리아니스모는 라틴아메리카

여성들에게 주어지는 모성 관념으로 가톨릭의 성모 마리아에서 기인했다. 이 관념은 여성들이 자아를 포기하고 자기희생을 통해 가정에서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갇히게 한다(이순주, 2010).

전반적으로 멕시코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은 가정을 유지하고 자녀를 출산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 마리아니즘은 여성의 자녀 출산 즉, 재생산 권리를 사회에 종속시킨다. 이에 대해 달라 코스타(Dalla Costa)는 자본과 국가가 여성의 재생산을 관리하는 것이 여성의 성생활을 노동력 재생산 기능으로 축소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한다. 여성은 이러한 구조 속에서 남성의 종속적 존재로 만들어지고, 사회적 생산에 참여하는데 제한을 받게 된다(김상애 외, 2019, 61). 여성이 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와 결정권을 가질 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남성과 동등한 인간으로 존중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성 관념에 집중하는 마리아니즘은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존재로 만들지 못하며, 가정과 사회 구조 속에서 여성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가족 제도 내의 여성의 가사노동 역할 강조는 여성이 주로 가사노동을 전담하고 남성에게는 임금 노동자로서의 역할이 부여되는 성별 분업구조를 말한다. 이 성별 분업구조에서 여성의 가사노동은 항상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이며, 여성으로서 가지는 당연한 의무로 여겨진다. 이는 자본주의 산업화 사회의 기반이 되기도 한다(아이린 파드빅, 바버라 레스킨, 황성원 역, 2021, 29, 56-58). 따라서 멕시코 사회에서는 젠더 구별이 사회에 깊게 뿌리내리며 여성은 무급 가사노동과 재생산을 부담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실제로 멕시코의 여성들은 무급 가사노동에 상당한 시간을 투입하고 있다. OECD의 통계⁵에 따르면

⁵ OECD 가족 데이터 베이스, 15세 이상 인구의 젠더에 따른 시간활용, 1999-2013년

대부분의 국가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무급 노동과 돌봄노동을 더 많이 수행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여성들은 경제적으로 불리하게 되며, 사회적으로 그 노동에 대한 가치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다. 멕시코의 경우, 이러한 패턴이 더욱 두드러져 여성이 무급 노동과 돌봄노동을 남성보다 약 5배, 2.5배 많이 수행한다.

〈표1〉 OECD 가족 데이터 베이스, 15세 이상 인구의 젠더에 따른 시간활용, 1999-2012/2013a.

단위: %		임금노동 및 학습	무급 노동	돌봄 노동	개인 관리	여가	기타	총합
멕시코	남성	30.0	4.4	3.5	43.7	17.7	0.6	100
	여성	12.1	22.5	8.6	41.8	14.1	0.8	100
평균 (24개국) ⁶	남성	20.2	8.9	1.6	45.4	22.7	1.2	100
	여성	12.7	16.5	3.9	46.0	19.7	1.1	100

출처: OECD⁷

마리아니스모의 영향으로 여성들은 자기 결정권을 가지지 못하고 비임금 노동자로서 무급 가사노동과 재생산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⁶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한국, 라트비아,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터키, 영국, 미국, 불가리아, 리투아니아

⁷ 오스트리아,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스페인, 노르웨이를 제외한 유럽 국가들은 멕시코와 Harmonised European Time Use Surveys dataset (HETUS)의 조사 결과이고 호주, 캐나다, 일본, 한국, 멕시코의 경우 국가의 조사 결과이다. 멕시코는 2002년 기준 한국은 2009년 기준. 24개국 평균 통계는 본 연구자가 분석을 위해 직접 계산하였다.

여성은 사회 구조 속에서 제한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사회적 지위와 결정권에서 남성과의 불평등한 위치에 처하게 되고, 경제적으로도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2) 여성혐오 폭력 심화

멕시코에서는 여성혐오 폭력 문제가 점점 심화되는 양상도 보인다. 마스 수에노스(Más sueños, 2020)의 자료에 따르면 여성혐오 폭력은 사기나 무시부터 시작해 위협, 통제, 물리적 폭력, 살해 협박, 강간, 살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강도와 방식으로 존재한다. 다양한 폭력의 심각성은 도시 내 다양한 여성폭력 예방 시스템을 통해 인지할 수 있다. 대중교통 시스템에서의 여성 전용 구역⁸은 여성들이 대중교통수단에서 경험하는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써 도입되었다. 2018년 멕시코의 여성주의 단체 EPADEQ/ONU Mujeres의 자료에 따르면, 여성 승객 중 10명 중 9명이 대중교통에서 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보고되었다. 결국 대중교통의 여성 전용 구역 운영은 대중교통에서의 성추행, 괴롭힘, 폭력, 불안 등에 대한 대응 조치 촉구의 결과로 나타났다.

여성혐오 폭력에 대한 운동은 멕시코시티의 Juarez 14번 길에 위치한 Antimonumenta contra el feminicidio를 통해 상징된다. 2019년 8월 13일에 설치된 이 반기념비는 Antimonumenta 운동의 중요한 일환으로,

⁸ 멕시코시티의 대중교통 메트로와 메트로버스 정류장에서 여성 및 12세 미만 아동 전용 구역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러한 조치는 여성 승객의 안전을 강화하고 성추행 및 괴롭힘과 같은 문제를 줄이기 위해 2000년 7월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현재는 멕시코시티 내의 메트로와 메트로버스 전 구간에 적용되고 있다.

기념비의 개념을 부정하고 여성들에 대한 살해와 폭력을 영원히 기억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이 반기념비의 조성을 위해 여성혐오 살해 유가족들과 여성운동가들은 사용하지 않는 열쇠를 모아서 기금을 마련했다. 반기념비에는 'NI UNA MAS(더 이상 한 명도 안된다)', 'EN MEXICO 9 MUJERES SON ASESINADAS AL DIA(멕시코시티에서 하루에 9명의 여성이 살해당한다)'⁹, 'NO+FEMINICIDIO(여성살해 타파)', 'EXIGIMOS ALERTA DE GENERO NACIONAL(국가적 경계를 요구함)' 등의 문구가 기록되어 멕시코의 여성혐오 살해 실황을 알리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요구한다.

여성혐오 폭력의 가장 극단적 사례는 여성혐오 살해이다. 여성혐오 살해의 양상은 남성 대상 살해와 비교했을 때 더욱 잔인하다는 특징을 보인다. 남성 대상 살해의 경우 전체 살해 사건에서 3분의 2를 넘는 유형이 총기 살인이다. 하지만 여성혐오 살해의 경우 교살, 질식, 익사 등과 같은 방법이 18%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이러한 유형의 살해 사건 비율이 남성에 비해 3배 이상 높다(Roldán, N et al., 2022). 이러한 양상은 여성혐오 폭력과 인권 침해가 더욱 심각함을 시사하며, 이는 멕시코의 사회적 요인과 깊게 연관되어 있다. 가부장제와 성차별은 남성의 지배와 여성의 사회적 종속을 촉진하는데 이를 통하여 편견과 차별을 기반으로 하는 공격적 태도가 형성되고 결국 여성혐오 폭력을 촉발한다. 여성혐오 폭력의 한 유형인 가정 내 폭력의 지속은 여성혐오 살해의 발생을 촉진하고, 법 집행기관 및 사회 시스템의 무능함은 가해자들을 적절하게 처벌하지 못하게 만들어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 여성혐오 살해 사건들이 충분히 공식적으로 보고되지 않거나 가해자가 적절하게

⁹ 최근에는 이 수가 늘어 반기념비의 문구가 9명에서 10명으로 수정된 모습을 볼 수 있다.

차별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여성혐오 살해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 잔인성이 더욱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

3) 여성 위계에 따른 인권침해 차별화

멕시코 여성운동 역사를 살펴보면 멕시코 여성들의 위계적 특성을 알 수 있다. 멕시코 여성들은 거주 지역, 인종, 경제적 역량, 교육 정도에 따라 각각 다른 차별에 처해있다. 도시와 시골 간, 북부와 남부 간 지리적으로 다양한 특성을 가져서 여성들의 삶을 형성할 때 차이가 존재한다. 거주 지역에 따라 교육 및 직업 선택의 기회가 크게 달라지는 것이다. 그리고 여전히 원주민 여성들은 다른 여성들에 비해 정치적, 사회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

우선 '낙태 비범죄화 운동'을 살펴보면 경제적 역량에 따른 위계를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낙태 비합법화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논쟁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어디까지 용인될 수 있는지와 태아의 생명권이 어디서부터 생겨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얼마나 침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진다(전윤정, 2020). 그러나 멕시코에서 낙태 비범죄화 운동은 다소 다른 관점을 가진다. 멕시코에서 낙태는 모성사망의 세 번째 이유이다. 안전하고 공식적인 낙태는 이들의 생명권과 직결되어 있다.

그리고 멕시코 낙태 비범죄화 운동가들이 자주 하는 말 중 “부유층 여성들은 낙태를 할 수 있고, 빈곤층 여성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멕시코에서 낙태가 많은 여성을 사망에 이르게 하지만

특히 빈곤한 여성에게 더 큰 위협을 준다는 의미이다. 낙태에 의한 죽음은 대부분 30대 미만의 어린 여성이 원치 않는 임신을 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비공식적이고 열악한 환경에서 낙태 시술을 행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므로 사회정의와 공공보건 문제로 논의되기 시작했다(강경희, 2009).

이렇게 여성들이 합법적이고 안전한 낙태를 선택할 수 없다면, 여성 중에서도 취약한 상황에 놓인 이들에게는 낙태에 따른 건강상의 위험이 높아지고 경제적, 사회적 빈곤도 더욱 악화될 수 있다. 또한 이 문제는 멕시코 사회의 미혼모 문제로도 확대되었다. 이는 멕시코 사회에서 미혼모 문제로 가시화된다. 에리베르토(HERIBERTO LÓPEZ ROMO, 2016)의 연구에 따르면 멕시코에는 11 가지 종류의 가족 구성이 있다. 가장 많은 가족 구성은 핵가족(부부와 미성년 자녀)이고 다음으로 많은 가족 구성은 미혼모 가정이다. 이 구성 비율은 각각 25.8%와 16.8%를 차지했다. 핵가족 비율은 경우 OECD 32 개국의 평균인 약 26.7%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미혼모 가정의 비율은 OECD 평균인 약 5.7%를 웃돈다.¹⁰ 전자의 경우 전통적 가족이고 후자의 경우는 2000년대 이후 증가한 신생적 가족에 속한다. 멕시코 미혼모 가정은 특히 자발적으로 구성되기보다는 아버지의 방치에 의해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비자발적 미혼모 가정은 가족 계획 및 생활 기반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INEGI(멕시코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멕시코 내 820만 가구의 가장이 미혼 여성이며 이 중 절반(45.9%)이 빈곤 상태에 있다.¹¹

¹⁰ OECD Family Database. 2. The labour market position of families (LMF). Workplace hours and time for caring. LMF2.5 Time used for work, care and daily household chores.

¹¹ Asociacion Mexicana de Resiliencia (AMERSE). 2022.12.09 접속

여성혐오 살해 또한 멕시코 여성의 위계를 보여준다. 멕시코 여성혐오 살해는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멕시코 북부 국경 지역은 여성혐오 살해가 더욱 심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것은 북부 국경 지역의 여성들이 가진 남성에 대한 경제적 종속이 더욱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여성들은 남성에 경제가 종속되어 있어 사회적으로 더욱 빈곤할 수밖에 없고, 더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범죄의 위협에 더 많이 노출된다(박윤주, 2022). 북부 국경 지역 여성들의 경우 다른 지역의 여성들보다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북부의 치와와와 후아레스의 경우 여성혐오 살해 사건이 빈번하여 여성혐오 살해의 수도라고도 불린다.



2. 멕시코 여성운동의 역사

멕시코의 여성운동은 오랜 역사를 가지는데 일반적으로 멕시코 혁명(1910-1917)을 그 기점으로 한다. 이 시기부터 1935년까지는 멕시코 여성운동의 초기라고 볼 수 있다. 이때는 주로 정당의 여성 조직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적인 움직임을 통해 기본권을 추구했다. 여성들은 멕시코 혁명을 겪으면서 상당한 정치적 경험을 가지게 되었고, 특히 공산당과 사회당을 중심으로 여성운동 조직이 만들어졌다. 이 시기에는 여성들이 사적 영역에서부터 공적 영역까지 기본적인 권리를 추구하기 시작했다. 새로이 형성된 여성운동 조직들은 1914년에는 이혼법 제정을 통한 사적 영역에서의 여성 해방을 성취했다(Roldon, N et al, 2022). 1935년부터는 여성운동 조직들이 연합을 결성하며 여성의 권리 추구가 공적 영역으로 확장되어 참정권 요구가 점차 가시화되었다. 이 시기에는 계급과 이념을 넘어 여러 성향의 여성 운동가들이 참정권 쟁취라는 하나의 목표를 공유했다. 결국 1953년 18세 이상 기혼 여성과 21세 이상 미혼 여성의 참정권을 획득한다(강경희, 2008). 그러나 이 시기 멕시코 여성운동은 정치적 발전의 의의를 가져 여성들이 주체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후 여성운동은 68혁명을 기점으로 다시 확산된다. 이 시기는 멕시코 여성운동의 신페미스트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이때는 교육과 계몽 활동을 통해 여성들이 성적 자주권을 얻게 하고 여성인권에 대한 인식을 가지게 하려 했다. 학생운동 이후 유럽 유학을 통해 서구 페미니즘 관점을 습득한 여대생들과 68혁명 이후의 사회 개방이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여성들의 인식이 멕시코 신페미니스트의 등장을 촉발했다. 이러한

멕시코에서 등장한 신페미니스트들은 멕시코시티를 중심으로 중산층 여성들의 교육과 계몽을 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유엔 주최의 멕시코시티에서 개최된 1975년 제1차 세계여성대회 불참은 이들에게 중요한 변곡점이 되었다. 이들은 해당 대회가 멕시코 정부의 정치적 의도에 따라 개최된 것으로 판단하고 불참함으로써 세계 여성대회에서의 발언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신페미니스트들은 멕시코 여성운동 내에서의 주도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후 조직적 기반 확대를 시도했지만, 낙태와 동성애와 같은 민감한 이슈로 인해 가톨릭 세력과의 대립을 경험하며 다른 사회운동과의 연대에 실패하게 되었다. 이 시기까지는 멕시코 여성운동 주체들이 상류 여성들의 이슈에만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저소득층 여성들의 문제에도 주목해야 한다는 측면에서의 한계가 존재한다.

이 시기 중요 의제는 여성의 성적 자유권이였다. 실비아 에르난데스(Silvia Ernades)는 1974년 피임법을 공개적으로 주장하며 공개적으로 낙태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는 당시 멕시코의 사회적 맥락에서 상당히 주목할 만한 사건으로 볼 수 있다. 그 후로 다양한 여성운동 단체들이 낙태 문제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낙태는 공중 보건 문제로 인식되게 되었다. 최종적으로 1979년에 길베르토 린콘 가야르도(Gilberto Rincon Gallardo)가 낙태법을 최초로 제안하고, 1983년에 연방 형법에서 낙태를 비범죄화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Roldan, N et al, 2022). 그러나 당시의 움직임은 법적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여전히 경제적인 불평등과 여성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켜야 한다.

1980년대 이후의 여성운동은 민중적 페미니즘 시기로 볼 수 있다. 이때는 NGO 구성을 통해 젠더 관점의 재고 및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 논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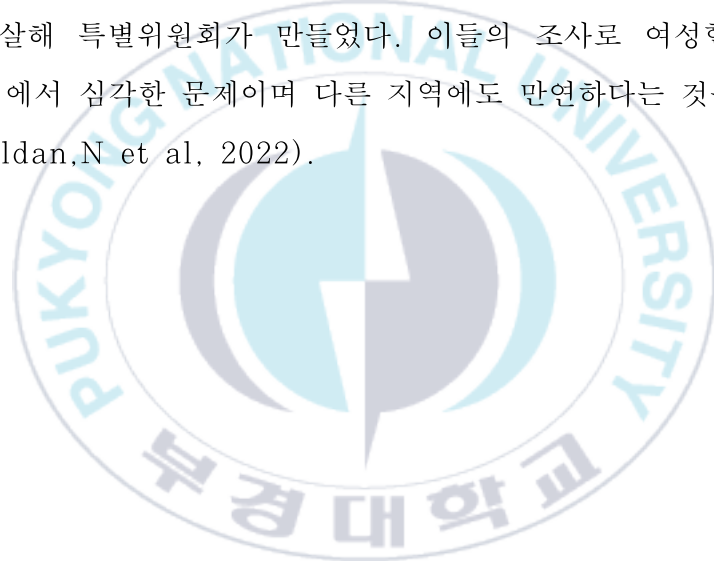
중심이 되었다. 민중적 페미니즘 운동은 1982년 모라토리엄 이후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멕시코 페미니스트들이 민중 여성을 위한 프로젝트에 투입한 결과로, 이로써 여성들과 페미니스트들 간의 접촉이 늘어나고 민중적 페미니즘이 구축되었다. 신페미니즘의 폐쇄적 실천주의를 극복하고, 다른 사회운동과 연대하며 젠더 관점의 강화를 요구하는 데에 성공한다. 이들은 주로 여성의 노동이나 원주민 여성, 여성 농민 등의 문제를 다루는데, 이러한 노력들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강경희, 2008).

1990년대 말부터 2010년대까지,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는 지속적으로 여성의 낙태 권리에 대한 중요한 페미니스트 이슈가 공유되었다. 라틴아메리카의 여성운동 조직들은 온두라스의 쿠데타(2009)와 아이티의 지진(2010) 사건을 통해 국제적인 연대를 경험했고 멕시코 여성운동 또한 그 영향을 받았다. 이를 통해 여성들의 인식 변화도 일어났다. 이 시기부터는 가정 폭력과 성폭행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시민사회 차원의 노력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과거 여성이 겪는 가족 내 폭력은 사적 문제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공 정책의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1995년 제4차 세계여성대회 이후 NGO들과 각국 정부의 논의를 통해 베이징선언 및 행동강령¹²이 제정되었고 그 영향으로 '세계 여성 폭력 추방의 날'이 지정되었다. 1999년부터 멕시코에서도 공식적으로 '세계 여성 폭력 추방의 날'을 기념하기 시작했다. 이렇듯 NGO들의 활동은

¹² 1996년 제4차 베이징여성대회에서 채택되었다. 이 행동강령은 빈곤, 교육훈련, 건강, 폭력, 무력분쟁, 경제, 권력 및 의사결정, 제도적 매커니즘(관련기구), 인권, 미디어, 환경, 여성어린이 등 12개 주요 분야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를 실천전략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의 여성발전을 위한 행동규범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출처: 양성평등아카이브 여기모아.

여성들이 지위와 권한 부족으로 인해 가정 내에서 폭력과 차별을 경험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만드는 성과를 보였다. 그리고 법 개정을 위한 움직임도 생겨났으나 성과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았다. 2001년 비센테 폭스(Vicente Fox) 대통령이 국립 여성 연구소를 설립하며 법률 개혁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여성혐오 폭력에 대한 발전적인 개선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오히려 2006년 후아레스시에서 일어난 여성혐오 살해 사건으로 여성혐오 폭력 신고가 가장 높은 수준에 달하게 되었다. 정부가 이 사건을 공식 인정하지 않으려 하며 논란이 만들어졌고 결국 여성혐오 살해 특별위원회가 만들었다. 이들의 조사로 여성혐오 살해가 후아레스시에서 심각한 문제이며 다른 지역에도 만연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Roldan, N et al, 2022).



IV. 멕시코 여성운동에서의 네트워크화된 운동 전략

4장에서는 네트워크화된 운동 전략이 멕시코 여성운동에 도입되는 과정과 그 영향을 살펴본다. 네트워크화된 운동 전략이 현재 멕시코에서 여성운동을 비롯한 사회운동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페이스북(Facebook), 인스타그램(Instagram), 트위터(Twitter)¹³같은 SNS 서비스 외에도 유튜브(YouTube), 왓츠앱(Whatsapp), 틱톡(TikTok), 텔레그램(Telegram), 레딧(Reddit) 같은 다양한 플랫폼들을 활용한다.¹⁴ 일반적으로 여성운동에서는 이러한 플랫폼을 활용한 네트워크화된 운동 전략이 2000년대 이후 제4물결¹⁵ 시기에 중요해졌다고 주장한다.

멕시코 여성운동은 여러 주체들이 하나의 공동 목표 및 운동으로의 통합에 어려움을 겪는 과제를 경험하고 있다. 최근의 참여자들은 여성의 권리를 증진하는 동시에 사회 구조를 비판적으로 조명하며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시각과 주제를 공유하고 단결하고 있고 이러한 방식을 분석하지 않고는 최근 멕시코에서의 여성운동 시위들을 이해하기 어렵다(Cerva Cerna, D., 2020). 본 연구에서는 멕시코에서 여성운동에 이러한 전략이 도입된 원인과 그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¹³ 2023년 7월부터 X로 명칭 변경,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독자의 편의를 위해 변경 전의 명칭인 트위터로 표기한다.

¹⁴ https://issuu.com/aborteraw/docs/redes_sociales-fanny-glez_jun2023

¹⁵ 제4물결 페미니즘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소셜 플랫폼 활용하여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의견을 나누고 상호작용하는 특징을 갖추고 있다. 기존 페미니즘의 한계를 넘어 상호교차적인 관점을 강조하며 다양한 차원의 차별과 불평등에 대응한다.

1. 멕시코 여성운동 전략 양상

1) 기존 운동 전략

멕시코 여성운동은 초기에 정당 내 소규모 조직을 중심으로 한 풀뿌리 활동으로 구성되었다. 이후 1980년대에 들어서며 멕시코 여성운동 단체의 구성은 NGO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전에는 소규모로 여성주의 의식을 퍼뜨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던 모임들이 NGO의 형태가 되어 자금 지원을 받고 페미니스트들이 지속적으로 여성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를 통해 페미니스트들은 다른 여성들에게 교육을 제공할 수 있었고 전국적인 여성 지원 네트워크의 형성이 가능했다. 1980년대에 조직되었던 NGO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해체되거나 변화하면서 계속해서 여성 문제에 대하여 협력했다. 이 시기에는 거리 시위 등의 직접 동원보다는 여성 계몽 및 사회적 협력이 여성운동의 주 전략이 되었다. 주로 중산층 여성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교육기관을 설립했고 주로 사용했던 매체는 La Revuelta에서 발간한 동명의 잡지나 Fem.의 분기별 페미니스트 발간물 같은 서적들이었다.

2000년대에는 점점 페미니스트들이 멕시코 정부와 정당에 개입하는 방식으로 여성운동이 이어졌다. 여성운동 참여자들은 민주화 과정에서 단순한 대중 참여를 넘어서 입법 및 행정 과정에 참여할 필요성을 느꼈고 적극적으로 정치 활동에 참여했다(Simone Bohn, Charmain Levy., 2021). 2002년에는 선거 개혁을 이루어 2003년 선거부터 여성 의원 할당량을 의무화했다.¹⁶ 결과적으로 2018년 선거에서는 하원의원 총

500석 중 248석(49.6%), 상원의원 128석 중 63석(49.2%)이 여성 의원으로 선출되는 정치적 동등성이 성취되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개혁은 여성운동에 참여하는 대중이 요구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보장할 수는 없고 교육이나 가정에서의 평등 등에 대한 논의를 놓치게 만들었다.

1980년대와 2000년에는 각각 NGO화와 정치 참여가 여성운동의 전략이었다. 이 시기에 여성운동에서 주로 논의되던 문제는 낙태 비범죄화 및 성적 평등이었다.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한 정치적 움직임의 예시로 멕시코시티에서의 낙태 비범죄화 운동을 들 수 있다. 낙태 비범죄화에 대하여 1990년대에 있었던 국제적인 지지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낙태권을 대표로 하는 라틴아메리카 여성 문제는 여전히 해결이 쉽지 않은 과제였다. 오히려 여러 국가들이 정치적 맥락으로 인하여 진행 중이던 낙태 합법화 의견을 철회하거나 이미 합법화되었던 낙태 시술을 불법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멕시코시티의 여성운동 조직들은 적극적인 정치적 참여를 통해 다른 국가들과 예외의 성과를 이끌어냈다. 2007년 멕시코시티 낙태 합법화는 1999년의 '파울리나(Paulina) 사건'¹⁷으로 촉발되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멕시코시티여성보건망¹⁸이 낙태 논의가 빨라졌다.

낙태 합법화를 추진하는 세력은 프로 비다(ProVida)와 같은 극보수

¹⁶ 2003년에는 30%, 2007년에는 최소 40%의 여성 의원 할당이 설정되었다.

¹⁷ 강간으로 인해 임신을 한 13세 여자아이 파울리나의 합법적 낙태를 멕시코칼리(Mexicali)주 공무원이 방해한 사건이다. 공무원들이 합법적 낙태 가능 시기에 낙태를 진행하려 하는 파울리나의 부모를 계속해서 설득하려 했고 결국 합법적 낙태 가능 시기를 넘겨 그녀는 낙태 시술을 할 수 없게 되었다.

¹⁸ APIS, SIPAM, GIRE, CIMAC 등의 시민사회단체와 민간 단체 등이 참여한 연합이다.

단체 및 가톨릭 교회 세력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했다. 이들은 주로 낙태 수술 대상이 가톨릭 신자이며 기혼 여성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반대 입장을 논리적으로 구축하였다. 가톨릭 조직에서도 CDD(결정권을 위한 여성가톨릭교도들), Red Nacional Catolica de Jovenes por el Derechos a Decidir(결정권을 지지하는 전국 가톨릭청년 연합) 등의 낙태 합법화 지지 세력도 등장했다. 2006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혁명당 후보의 패배로 대중의 분노가 일면서 낙태 합법화 운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견해도 있었지만, 멕시코 내에서 다양한 조직들에 의한 지속적인 노력이 낙태 합법화 논의를 구축하고, 멕시코시티에서 합법화 성공을 이룩하는 데 영향을 미쳤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강경희, 2009).

2) 네트워크화된 운동 전략

네트워크화된 운동 전략의 등장 배경으로는 여성혐오 폭력에 대한 논의가 있다.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전에는 여성혐오 폭력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시우다드 후아레스(Ciudad Juarez)를 중심으로 사회적으로 취약한 여성들이 살해당한 사건이 알려지며 여성혐오 살해라는 개념이 나타났다. 또한 많은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소외된 상황 속에서 살고 있으며 물리적 폭력 외에도 구조적 폭력에 처해있다고 지적된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최근 여성운동 참여자들은 대중의 노력을 강조했고 이는 거리 시위로 드러난다. 특히 지난 10여 년간 여성운동 전략이 가진 특징적인 요소는 정보 기술과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활용이라고 볼 수 있다.

2016년경 멕시코 여성운동 참여자들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대규모 전국 조직을 구성하기 시작했다. 멕시코에서 네트워크화된 운동 전략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아르헨티나 여성운동의 영향이 크다. 일반적으로 아르헨티나 여성운동에서 소셜 미디어를 사용한 네트워크화된 운동 전략이 사용되기 시작한 시점은 #NIUNAMESOS 캠페인 확산 시기로 인식된다. #NIUNAMENOS 운동은 2015년 아르헨티나에서 여성혐오 살해에 대항하며 시작되어 멕시코뿐 아니라 다양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 전달되었다. 멕시코에서는 2016년 '보랏빛 봄(Primavera Violeta)'이라는 대규모 동원이 발생했는데 당해 4월 24일 일요일 멕시코 40개 이상의 도시에서 #VivasNosVamos(살아서 떠나자)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여성혐오 폭력에 대한 전국적인 시위가 일어난 것이 그 예이다.

또한 멕시코 여성운동에서의 네트워크 전략의 확산 원인에 대하여 주로 외부에서 비롯된 영향을 강조한다. 이 시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METOO 운동, He for She 운동, Marea Verde 운동 등과 같은 여러 해시태그 운동들이 소셜 네트워크와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바이럴 활동을 펼치고, 성공적으로 여성운동 의제의 논의를 확장시켰다¹⁹. 국제적인 운동들의 영향으로 멕시코 내에서도 #NIUNAmás, #MIPRIMERACOSO 등의 운동들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확장되었으며, 네트워크화된 운동 방식이 여성운동의 주요 전략 중 하나로 떠오르게 되었다.

폰도 세미야스(Pondo Semillas)의 마리아나 프레이테스(Marina Freitez)는 "그 이야기(네트워크화된 운동 전략)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은 2015년경이다. 사람들은 #MIPRIMERACOSO (나의 첫번째 괴롭힘)라는 해시태그를 던졌다. 그것은 아주 중요했고 (여성운동)

¹⁹ 온라인 설문조사 2번 항목에 대한 답변.

조직의 시작이 되었다²⁰고 말했다. #MIPRIMERACOSO 운동은 브라질에서 있었던 #PrimeiroAsseido 운동의 모사로 나타난 운동이다. 2016년에 일어난 이 운동은 보랏빛 봄의 한 과정이며 이 해시태그를 통해 여성들은 소셜 미디어 상에서 자신들이 첫 번째로 경험한 성희롱이나 성폭력 경험을 공유하고 가시화했다. 이 외에도 다양한 해시태그 운동이 여성운동의 논의를 아카이빙 하거나 직접 동원을 이끌어냈다.

〈표2〉 멕시코 여성운동의 주요 해시태그 운동

시기	해시태그	내용
시기가 정해지지 않고 간헐적으로 반복됨	#NiUnaMenos	여성혐오 폭력이나 불법 낙태 시술로 인해 희생되는 여성들을 나타내며 다양하게 사용되는 해시태그
	#AbortoLegal #AbortoLegalYa #SeraLey #MareaVerde	낙태 비범죄화에 대한 해시태그로 아르헨티나를 중심으로 라틴 아메리카 여러 국가에서 공유하는 해시태그, 뒤에 멕시코를 나타내는 MX를 덧붙여서 사용하기도 함
2016/4	#24A #VivasNosVamos	함께 여성혐오 폭력 및 살해에 대한 경계를 나타내기 위해 (여성혐오 폭력으로부터) 살아남아서 나아가자는 의미를 가진 문구를 통해 4월 24일에 있는 대규모 전국 여성운동에의 동원을 독려하고 홍보하는 해시태그
	#MiPrimeroAcoso	여성혐오 폭력에 대한 시위와 함께 여성들이 일상 속에서 어떠

20 2023년 8월 23일 폰도 세미야스 사무실에서 진행한 인터뷰.

		한 폭력을 경험하는지 알리고 공유하기 위해 자신들이 처음으로 경험한 여성혐오 폭력을 이야기하는 해시태그
2019/8	#NoMeCuidanMeViolan	2차례의 경찰에 의한 성폭력 사건 이후 정부 대처의 미흡으로 인하여 분노하며 경찰들을 고발하는 의미의 해시태그, SNS상의 예고 이후 8월 16일의 전국적 시위로 이어짐
2020/2	#IngridEscamilla(Fotos)	2/8: 20대 동거남에 의해 살해된 20대 여성의 시신 사진이 유출되어 SNS에서 소비되며 그에 대한 저항으로 피해자의 이름을 단 해시태그에 긍정적인 사진들을 게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JusticiaParaFatima	2/15: 7세 여아가 납치된 후 성적 학대 및 살해되어 유기된 사건 이후 그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대응에 대한 분노를 나타내는 해시태그

출처: 연구자 작성

해시태그 운동 외에도 멕시코 여성운동 참여자들은 유튜브, 페이스북 등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거리 시위를 기록하고 그 안에서 댓글, 의견 표시 등을 통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2020년에 소셜 미디어 플랫폼 안에서의 운동이 재차 강화되었는데 이는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현상으로 해석된다. 소셜틱(Socialtic)의 베아트리스(Beatriz)는 "팬데믹 이후 소셜 미디어 운동이 더욱 커지는 이유는 팬데믹 시기에는 여성이 거리로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인터넷상에서 연결되었다."²¹고 말한다. 여성들이 현실에서 연결되지 못한

동안 이들에 대한 억압은 더욱 심화되었다. 경제적 침체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욱 심각한 영향을 미쳤고 재생산과 모성 보전은 많은 국가들의 보건 정책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었다. 그리고 격리 조치는 여성들이 가정 내에서 더 많은 여성 대상 폭력에 처하게 만들었다(Tabbush, C., & Friedman, E. J., 2020. 629-630). 독일,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미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도 팬데믹의 영향으로 가정에서의 폭력이나 여성에 대한 폭력이 증가하는 모습이 보인다(Tripathi, P., Dwivedi, P. S., Sharma, S., 2023). 여성들은 가정에서의 폭력에 노출되는 것뿐 아니라 팬데믹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의료 서비스의 최전선에 위치하여²² 과도한 노동에 노출되었으며 COVID-19 감염 자체에도 취약하다.

멕시코에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두드러진다. 멕시코 통계청(2021)에 따르면 멕시코 또한 팬데믹 이후 15세 이상 여성 국민 중 70.1%가 가정 내에서 폭력을 경험했으며 특히 심리적 폭력과 성적 폭력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Kräh, 2021, 4).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여성 살해 비율이 2019년에 비해 7.7% 증가했다(Urrutia and Jiménez 2020).²³ 여성들은 경제권을 잃고 가정에 격리되어 여성에 대한 폭력을 해결할 수 있는 창구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진다.

크라흐(Kräh, 2021)는 팬데믹 발생 이후 멕시코 내에서 여성혐오 폭력이 증가하며, 이로 인해 소셜 미디어가 여성운동의 주요 플랫폼으로 더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2017년경에 아르헨티나에서

²¹ 2023년 8월 25일 소셜틱 사무실에서 진행한 인터뷰.

²² WHO (2019). Manrique De Lara, A., De Jesus Medina Arellano, (2020)에서 재인용.

²³ Manrique De Lara, A., De Jesus Medina Arellano, (2020)에서 재인용.

시작된 낙태합법화 논의를 중심으로 한 라틴아메리카의 네트워크화된 여성운동은 2018년부터 여성혐오 폭력과 자기 결정권 문제를 중심으로 멕시코를 중심으로 확대되었다. 대면 논의나 거리에서의 시위와 같은 운동 전략의 활용이 어려워지면서, 인터넷을 통한 네트워크화된 운동 전략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크라흐의 연구에 따르면 멕시코의 여성운동가와 전문가들에게 소셜 미디어의 사용 목적은 정보 공유와 참여자들 간의 상호 연결인데 팬데믹 시기에 이러한 뉴미디어의 활용은 그들의 활동에 아주 유용하다고 평가된다. 우선 빠른 정보 공유를 통해 여성들이 폭력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네트워크화된 운동 방식의 장점 중 하나가 이것이기도 하다.

팬데믹 상황과 같이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 상황에서 정치적 행위는 비교적 덜 가시적인 형태로 연대한다(주디스 버틀러, 2020, 197-198). 이러한 여성운동의 특징은 네트워크화된 사회운동 방식으로 온라인 상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운동가들은 웹사이트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정치적인 공간으로 활용하며, 그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초국가적이고 동시다발적인 활동을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네트워크화된 여성운동은 단순히 당시의 행위에 그치지 않고, 운동의 아카이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특히 라틴아메리카 전반에서 여성의 역할이 사회운동에서 중요하게 부각되며, 멕시코 여성운동에서 강조되는 핵심 개념 중 하나는 사람들 간의 네트워크이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운동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서, 사회운동과 여성운동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한다고 할 수 있다(마라 알레한드라 파라, 정승희, 2012, 118).

설문 조사자 중 일부는 멕시코의 여성운동에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한 기록 방식이 처음 도입된 것은 2000년대라고 보기도 한다. 답변자

6은 페이스북의 등장 이후로,²⁴ “다른 지역의 동료들 사이에서 찾을 수 있는 확산 및 반향 수준(difusion y eco) 때문에²⁵” 여성운동가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페이스북의 활용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이라고 답변한다. 또한 답변자 7은 2000년대 초반부터 “여성들이 목소리를 내고 학문적인 영역에 국한되었던 이론과 토의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확장(poner al alcance de otras personas)되었기 때문²⁶”에 네트워크화된 방법이 중요성을 갖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소셜 네트워크나 인터넷이 많이 보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멕시코 내에서 일반 대중에게로의 운동의 확산보다는 운동가들 간의 다른 지역과의 정보 교류 및 연결이 주요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성 단체 활동가들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최근에는 소셜 미디어 서비스의 사용이 대중화되어 카드 뉴스 등의 간단한 정보 제공 형식으로 대중에게의 교육이나 여성운동 활동 홍보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1980년대에 여성운동 그룹의 NGO화를 통해 일부 여성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교육 및 계몽이 디지털 공간을 활용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더 많은 여성들에게 확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멕시코 사회운동 전반에서는 2012년을 멕시코에서 네트워크 방식이 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는 시기로 간주한다. 이러한 전환은 #Yosoy132 운동의 영향으로 두드러졌다. 답변자 12는 이 운동이 멕시코의 사회운동

²⁴ 페이스북은 2004년 2월에 시작되어 2008년부터 공식적으로 스페인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출처:

<https://www.adszone.net/2018/03/01/facebook-espanol-10-anos/> 검색일: 2023.10.20

²⁵ 온라인 설문조사 2번 항목에 대한 답변자6의 답변.

²⁶ 온라인 설문조사 2번 항목에 대한 답변자7의 답변.

진영에서 네트워크화된 전략이 중요해지게 된 원인이라고 이야기한다. #Yosoy132 운동은 2012년 5월 멕시코 대선 선거 운동 과정에서 나타난 운동이다. 2012년 5월 11일 제도혁명당(PRI)의 대통령 후보 엔리케 페냐 니에토(Enrique Peña Nieto)에 대한 대중 매체의 편향된 보도에 대한 대학생들의 항의로 시작되었다. 이에 동참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Yosoy132라는 해시태그 운동이 빠르게 확산되었다. 이후 5월 18일에는 항의 행진이 벌어졌고 대학생들이 주도하는 대선 토론회가 성사되었다 (Treré, E., 2013). 해당 사건이 멕시코 내에서 유명해지며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한 운동 방식도 더욱 보편화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는 여성운동에는 중요한 시기로 언급되지는 않는다. 실제로 아요치나파 사건, #Yosoy132 운동 등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성들이 소외되었다는 의견이 있다(Simone Bohn, Charmain Levy.2021). 하지만 #Yosoy132 운동의 성공이 멕시코 내의 다양한 사회운동 전략 변화에 영향을 미쳤음은 분명하다.

2. 네트워크화된 운동 전략의 효과

1) 멕시코 여성 처지의 개선

새로운 운동 전략은 사회적/정치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멕시코 여성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의견을 표출할 수 있게 한다. 소셜틱의 베아트리스는 소셜 미디어 내에서 일어나는 운동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사회적 주제,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교육하기 위해 소셜 미디어를 진정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때, 그것은 우리가 목소리를 갖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큰 순간(a huge moment of we have a voice and we can use it)이었다. 여러 여성들이나 일반인들에게 접근하여 우리가 어떤 이유로 투쟁하고 무엇을 바꾸고자 하는지(why we are like struggling for and what we want to change)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다."²⁷고 말한다. 이러한 운동들이 타인들에게 여성들이 겪는 문제를 가시화하고 대화를 폭발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두 참여자 모두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의 운동이 멕시코의 여성운동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고도 이야기한다.

네트워크화된 운동 전략은 멕시코 여성운동이 가진 지역적, 문화적 분절성 또한 극복할 수 있게 한다. 멕시코 여성운동에서 문제가 되는 분절성은 인터뷰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이들이 언급한 문제점으로 중앙 집중화와 지역적 격차를 꼽을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정동 소외자들 사이에서 또 다른 소외가 일어날 수 있다. 소셜틱의 베아트리스는 "(멕시코시티와 멕시코의 다른 지역들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중앙

²⁷ 2023년 8월 25일 소셜틱 사무실에서 진행한 인터뷰.

집중화(centralized)된 경향이 있다. 멕시코시티에는 대통령과 대법원, 다양한 대표자들 같은 권력의 물리적 표상들이 집중돼 있어서 상징적인 대규모 시위를 하면 어느 정도 언론의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모든 큰 언론사 사무실들이 여기에 모여 있기 때문²⁸이라고 말한다. 멕시코시티에서는 여성운동 참여자들의 활동이 활발하고 그에 따른 사회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반면, 다른 주에서는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지역을 넘어 정보를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멕시코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되었다.

또한, 폰도 세미야스의 디아나 메디나(Diana Medina)는 “멕시코는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보다 훨씬 더 많은 (여성운동)사회조직(muchas más organización social)을 가지고 있다²⁹”고 말하며 이것이 멕시코 여성운동 조직이 가진 특징 중 하나라고 이야기한다. 멕시코 국립여성연구소(INMUJERES)에 따르면 2006년 당시 약 천여 개의 시민단체가 여성운동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20여 개의 시민단체 간의 네트워크가 존재했다. 또한 폰도 세미야스는 멕시코의 다른 여성운동 단체들에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2022년에는 813개의 여성운동 단체가 지원 신청을 했으며, 2023년에는 168개의 단체에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에 다양한 여성운동 단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멕시코 여성운동에서 조직 간의 소통과 협력은 여성운동의 성공과 발전에 필수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디지털 플랫폼은 여성운동 조직이 내부와 외부에서 의사소통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²⁸ 2023년 8월 25일 소셜틱 사무실에서 진행한 인터뷰.

²⁹ 2023년 8월 23일 폰도 세미야스 사무실에서 진행한 인터뷰.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한 운동 전략은 멕시코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인 정보의 확산을 통해 멕시코 내의 여성 문제에 대한 글로벌 의식을 촉진하며, 지역 이슈를 전국적, 국제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하는 데 기여한다. 소셜틱의 베아트리스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펼쳐진 페미니즘의 이 대동단결(all this wave of feminism)은, 트위터나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콜롬비아 여성들이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인도 여성들도 마찬가지로 알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그래서 마치 (다른 지역에 있는 여성들이) 서로 소통하는 것 같은 운동의 순간들이 있었다.”³⁰고 말한다. 설문조사의 응답자들 또한 네트워크화된 운동의 장점으로 지역을 넘어 먼 곳에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강조했다.

멕시코의 네트워크 운동 전략은 지역 간의 인프라 격차에 의한 접근성에 대한 한계를 가진다. 인터뷰 참여자 전원과 다수의 설문 답변자들이 공통으로 이를 주요 제약 요인으로 골랐다. 멕시코의 일부 지역에서는 인터넷이나 휴대전화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인 경우가 있어,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접근성 문제는 멕시코시티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여전히 오프라인 활동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부각시킨다. 예를 들어, 폰도 세미야스는 “(인터넷 연결이 좋지 않은 지역이 많기 때문에) 여러 도전 과제들이 존재한다. 얼마 전에 멕시코 남부에 있는 치아파스 주에서 폭력이 다시 심해졌는데, 이 지역은 멕시코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 중 하나다. 웹 사이트나 비디오 통화를 유지하는 것조차 큰 어려움을 겪었다”³¹고 말한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멕시코의 다양한 지역에서 온라인 활동을 추진하는 데에는 제한이 따르며,

30 2023년 8월 25일 소셜틱 사무실에서 진행한 인터뷰.

31 2023년 8월 23일 폰도 세미야스 사무실에서 진행한 인터뷰.

이는 지역 간의 디지털 격차를 드러내는 결과로 이어진다.

또한, 한정된 인터넷 접근성은 여성운동 내에서 편향된 관점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이 설문 답변자들 사이에서 지적되었다. 인터넷에 접근 가능한 지역에서 주로 그 지역의 페미니스트 이론과 관점이 강조되고 확산되는 경향이 있어 “백인 페미니즘과 같은 (도시 중심의) 페미니즘 이론이 가시화되는(dio muchisima visibilidad a los feminismos blancos)³²”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일부 사람들은 페미니즘에 대한 충분한 이해나 기준 없이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고 이는 정보를 접하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다. 이로 인해 논의의 다양성이 제한될 우려가 있으며, 다양한 지역과 사회적 배경에서의 여성의 의견과 경험이 충분히 대표되지 않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접근하기 어려운 일부 운동가들은 효과적인 전략을 사용하기 어려워진다(no tienen estrategia)는 문제³³도 나타났다. 이로 인해 인터넷을 통한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부 여성운동 참여자들은 그들의 목소리와 의견을 전파하는 데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여성운동의 효율성과 다양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감정적 응집과 초국적 연대

네트워크화된 운동 전략이 멕시코 여성의 처지 개선에 영향을 미칠 수

³² 온라인 설문조사 3번 항목에 대한 답변자10의 답변.

³³ 온라인 설문조사 4번 항목에 대한 답변자8의 답변.

있었던 이유는 운동 참여자들 간의 감정적 응집을 이끌어 냈기 때문이다. 운동 멕시코 소셜 미디어에서 낙태 비범죄화 운동은 #AbortoLegalYa로 대표되는 해시태그 운동으로 나타난다. 인스타그램에 #AbortoLegalYa를 검색하면 총 46만 7천 개 이상의 게시물이 있다. 관련 해시태그인 #abortolegal을 검색하면 60만 8천 개 이상의 게시물이 있고, #abortolegalseguroygratis의 경우 21만 5천 개 이상의 게시물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해당 해시태그들 뒤에 낙태 비범죄화의 상징인 녹색 하트 이모지가 붙어있는 등 과생 해시태그의 경우에도 많게는 1만 5천여 개에서 적게는 몇 백 개의 게시물이 있다³⁴. 이를 통해 낙태 비범죄화 운동 과정에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홍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라우다노(2018)는 이러한 해시태그 운동이 대규모의 국민적 동원을 이끌어냈으며 사회에 낙태 비범죄화 요구를 성공적으로 전달한 방식이었고 해시태그들은 소셜 네트워크에서 지배적인 목소리가 되었다고 평가한다. 그리고 이러한 해시태그들의 등장이 성공적인 낙태 비범죄화 운동 연대기를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소셜 미디어 내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이들은 정동 소외자들 간의 정동을 이루어 낸 것이다. 기존 사회에서 같은 감정을 공유하지 못하던 이들이 소셜 미디어 플랫폼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감정 및 의견을 공유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진다. 비공식 차원의 정치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던 낙태 비범죄화 논의가 주목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낙태 비범죄화 주장이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지배적인 목소리가 된 것은 멕시코의 정동적 여성운동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이전에 낙태 비범죄화를

³⁴ 2023.10.29 검색

주장해오던 페미니스트들은 가족 제도와 종교적 문화를 위협하는 정동 소외자들이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사회의 정동에 포함되지 못한다. 특히 가족을 통해 나타나는 행복에 정동하지 못한다. 결혼, 출산 등은 가족들이 공유하는 행복의 방향이지만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러한 행복의 방향과 반대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사회에서, 가정에서 주류 사회의 규범과 다른 방식으로 작용하는 자들의 감정과 요구를 이해받지 못하고 부정적인 대우를 경험한다.

이때 소셜 미디어를 통한 운동 전략은 정동 소외자들이 자신들이 인식하는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님을 확인하게 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확산한다. 소셜 미디어가 지금까지 소외된 비공식적 차원의 정치 공간에 주목할 수 있는 하나의 창구가 되는 것이다. 이는 소셜 미디어의 “빠르고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돕는(nos ayudan para mantener una organizacion y comunicacion constante y rapida)³⁵” 특성이 주는 영향이다. 아보르토 레갈 멕시코(Aborto Legal México)의 설립자인 파니 곤잘레스(Fanny González) 또한 낙태 비범죄화에 대한 논쟁이 멕시코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이어졌다고 이야기한다.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했고 소셜 네트워크 공간은 낙태 및 여성운동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장이 되었다.

또한 파니 곤잘레스는 소셜 미디어를 활용할 때 즉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여성들과 소통하고 친밀감을 줄 수 있었다고 말한다. 또한 이를 넘어서 낙태 논의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확장하고 국제적인 연대도 이끌어낸다. 이러한 측면은 현재 멕시코 여성운동 참여자들이 운동을 홍보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을 통해 잘 나타난다. 파니 곤잘레스는 소셜 네트워크를 토론과 정보

35 온라인 설문조사 3번 항목에 대한 답변자 5의 답변.

공유의 장으로 제시하며, 이것이 여성운동에 새로운 차원을 더했다고 강조한다. 그녀는 왓츠앱의 단체 메시지 방을 소개했는데, 그 안에서 다양한 여성운동 단체들의 구성원들이 모여 즉각적으로 새로운 정보나 자신들의 활동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이를 뒷받침하는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멕시코 여성운동 관련 설문조사 참여자 중 71.4%가 정보 보급의 신속성(Rapidez en la difusión de información)을 네트워크화된 운동 방식의 가장 영향력 있는 측면으로 지목하였다. 그리고 네트워크화된 운동 방식의 장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으로도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답변자들은 “정보접근성이 대부분의 인구에게 더 좋아지며(La accesibilidad a la información para un gran porcentaje de la población)³⁶”, “콘텐츠의 생성과 소비를 위한 접근이 용이하여 정보가 더 빨리 확산된다(Es accesible, tanto para crear contenidos como para consumirlos, por lo que la información se dispersa más rápido.)”고 답했다. 이에 따라 소셜 미디어를 통해 “더 효율적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이 가능하며(Más eficiente y al alcance de todas Llega a más personas)³⁷” “가시화를 통해 원천을 바이럴 할 수 있다(Visibilización de causas que se pueden viralizar)³⁸”.

정동 이론의 시각에서 보면 여성들이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초지역적, 초국적으로 경험을 공유하고, 그로 인해 자신이 알지 못했던 현실을 접하게 되는 과정은 사람들 간의 접촉으로 이해될 수 있고 이것이 평범한

36 온라인 설문조사 3번 항목에 대한 답변자17의 답변.

37 온라인 설문조사 3번 항목에 대한 답변자12의 답변.

38 온라인 설문조사 3번 항목에 대한 답변자15의 답변.

여성들에게 페미니즘 이슈에 대한 인식을 확장하고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는 경험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초지역적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여성운동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여성혐오 폭력에 대한 경험이 정체성을 넘어 공유되면 서로 다른 상황에 처해있는 여성들이 서로를 공감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제적 연대가 생겨나고 결국 세계시장을 통해 연결된 여성들이 다른 집단의 희생 없이 모두의 존엄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마리아 미즈, 2014, 467-469).

#AbortoLegal #AbortoLegalYa #SeraLey #MareaVerde 등의 낙태 비범죄화 관련 해시태그들은 국가 내에서만 공유되는 것이 아니라 아르헨티나를 중심으로 초국적으로 공유되었다. 같은 해시태그를 사용하고 같은 상징물을 사용하며 라틴아메리카 국가 간의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다른 해시태그 운동들과 달리 일시적인 수명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수년간 지역을 넘어 간헐적으로 반복되며 국제적 지지 속에서 지속적인 공간적 동원을 요구하는 역할을 했다. 이를 통해 라틴아메리카 전체의 낙태 비범죄화 프레임워크에 동기를 부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해시태그들은 여성들이 개인적으로 겪은 낙태 관련 경험을 공유하여 이것이 개인의 논의가 아니라 정치적/국제적 의미를 가진 논의가 될 수 있게 한다. 소셜 미디어상에서 멕시코 낙태 비범죄화 운동을 접하는 사람들 간의 감정을 연결하여 행동에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감정적 응집을 통한 초국적 연대는 법적 성과를 이끌어냈다. 낙태 비범죄화 관련 해시태그 운동이 이끌어낸 초국적 연대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꾸준한 활동을 통해 라틴아메리카 각국의 법적 기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멕시코에서도 이러한 결과가 보였다. 최근 멕시코 대법원에서 낙태죄는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는데 이는 지속적인 낙태 비범죄화 및 공공 보건으로의 편입에 대한 멕시코 여성들의 요구로 성취된 것이다.

멕시코시티의 합법화 사례를 시작으로 다른 11개 주에서도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 총 32개 주 중 12개 주에서는 낙태가 비범죄화 되었으나 여전히 공식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는 여성들이 많았다. 이렇게 각기 다른 상황으로 인해 낙태에 대한 모든 여성들의 의견이 정치적인 영향을 미치기 어려웠으나 네트워크화된 전략을 이용한 정동의 폭발을 통해 낙태의 비범죄화라는 가시적이고 정치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다. 2023년 9월 6일 대법원장 5인(남성 4인, 여성 1인) 중 3인이 비범죄화에 찬성하며³⁹ 연방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공식적인 낙태 비범죄화가 승인된 것이다. 이 결정으로 여성들은 낙태를 이유로 처벌받지 않으며, 낙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 인력도 처벌받지 않게 되었다. 또한 연방 내의 모든 공중 보건 기관은 낙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생겼다.⁴⁰

네트워크화된 운동 전략이 낙태 비범죄화로 이어진 사례를 통해 명확한 목표가 존재할 때 이 운동 전략이 효과적으로 작용하며 초국적 연대로 이어질 때 다른 국가에서의 선례를 통해 더욱 강력해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낙태 비범죄화에 관련된 멕시코 대법원의 움직임은 2018년부터 시작되었다. 물론 2008년에 연방 관할구에서 임신 12주까지의 낙태를 비범죄화 하는 것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적이 있으나 이것은 2007년 멕시코시티 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이후로 낙태 비범죄화에 대하여 큰 법적인 변화가 없었으나 2018년부터는 낙태를 시도하는 당사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는 판결을 내렸고 2021년에는 연방

³⁹ La Suprema Corte de México despenaliza el aborto en todo el país. <https://www.bbc.com/mundo/articulos/cp98d0njylpo>. 접속일: 2023.10.04

⁴⁰ 5 preguntas para entender que pasa en México tras la despenalización del aborto en todo el país. <https://www.bbc.com/mundo/articulos/cgl2810jld0o>. 접속일: 2023.10.04

내에서 절대적인 낙태의 범죄화를 위헌으로 판결했다.⁴¹ 대법원의 판결이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 시기가 운동가들이 네트워크화된 운동 전략이 사용되기 시작한 시기 이후이므로 이들의 움직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낙태 합법화 부분에서는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을 통해 낙태를 위한 의료품을 제공하는 등 직접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기 때문에 그 영향은 더 컸다고 볼 수 있다.⁴²

그러나 멕시코의 여성인권 단체 GIRE⁴³의 변호사 베로니카 에스파르사(Veronica Esparza)는 “대법원의 결정은 중요한 성과이지만 여전히 낙태 비범죄화는 각 주의 책임이고 아직 거쳐야 할 과정이 많다. 여전히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말한다.⁴⁴ 멕시코 대법원의 위헌 결정은 중요한 발전임에 분명하지만, 여러 과제가 남아 있다. 여전히 20여 개 주에서 낙태가 범죄로 간주되고 있으며, 낙태죄로 구금된 여성들에 대한 문제도 여전히 존재한다. 이로 인해 여전히 여성들은 낙태를 시도할 때 안전하지 않은 조건에서 시도할 수 있고, 이는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구금된 여성들에 대한 석방 시도는 지금까지 성공한 경우가 한 차례도 발견되지 않았다.⁴⁵ 법제화라는 한가지 단계를 지났다는 성과는 이루어졌으나 법적인 성과가 실질적인 차별과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⁴¹ La Suprema Corte de México despenaliza el aborto en todo el país. <https://www.bbc.com/mundo/articulos/cp98d0njylpo>. 접속일: 2023.10.04

⁴² La Marea Verde sacudio a México. <https://conlaa.com/la-marea-verde-sacudio-mexico/> 접속일: 2023.10.27

⁴³ 1992년 설립되어 주로 재생산권, 낙태 합법화에 대한 운동을 진행해왔다.

⁴⁴ 5 preguntas para entender que pasa en México tras la despenalización del aborto en todo el país. <https://www.bbc.com/mundo/articulos/cgl2810jld0o>. 접속일: 2023.10.04

⁴⁵ La Suprema Corte de México despenaliza el aborto en todo el país. Op.cit.

있냐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여전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당면한 문제의 해결을 통해 멕시코는 낙태에 대한 비범죄화와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여성들의 건강과 안녕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3) 새로운 의제와 직접 행동 동원

네트워크화된 운동 방식은 다양한 처지에 있는 여성들을 연결하고 그들 간에 지속적인 문제 해결을 추구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이를 통해 여성들과 여성운동 집단이 보다 큰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고 여성운동의 아젠다가 더 주요한 논의로 다루어지게 된다. 또한, #MIPRIMERACOSO의 사례와 같이 이전에 여성운동에 참여한 적 없던 사람들에게 여성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실시간으로 문제에 대한 논의를 가능하게 한다. 이 과정에서 지역과 시간을 초월하여 다양한 형태의 여성 문제들이 인터넷상에 전시되며, 이것은 하나의 아카이빙 역할을 하면서 실시간 논의에 참여하지 못한 인원들도 운동의 과정과 목적을 알 수 있게 한다. 결국 감정적 응집을 넘어서서 여성운동 이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장되는 것은 이에 대한 직접 행동을 유발한다.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한 네트워크화된 운동 전략은 "기존의 텔레비전과 라디오 같은 미디어의 규제와 제약(criterios/reglas/censuras)을 우회(no están atadas)할 수 있⁴⁶"어서 "전통 매체(medios tradicionales)와는 달리 여성의 분야(segmentos de mujeres)에 도달할 수 있고, 더욱 직접적이고 명확한 메시지를 줄 수 있다⁴⁷". 그렇기

46 온라인 설문조사 3번 항목에 대한 답변자3의 답변.

때문에 #Brillanteada 사건과 같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지점이 존재할 때에도 관련된 논의나 문제가 바이럴 되고 대화가 나누어질 수 있는 것이다. 전통 매체에서는 오랫동안 존재해온 여성들의 폭력 경험을 이야기하고 이에 대한 불만을 부정적인 감정으로 표출하는 것을 여성운동 논의의 문제로 본다. 그러나 기존의 제약을 우회하여 새로운 매체를 통해 새로운 메시지를 전달하고 정동 소외자로서의 여성들이 가진 부정적인 감정을 숨기지 않는 것은 이러한 논의에 대한 새로운 도약이 된다(멜리사 그레그, 그레고리 시그워스 편저, 최성희 외 옮김, 2015. 94-95). 여성운동에서 논의하는 문제들이 일부의 문제로 인식되지 않고 사회구조 및 전반적인 인권문제로서 다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 새로운 문제 제기에 대한 초지역적 연대와 사회적 인식의 확장이 현실 세계에서의 운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멕시코 여성운동에서 중요하다. 신속한 정보 전달과 참여자들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신속하고 광범위한 자원의 동원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 운동 시위도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멕시코의 일간지 '엘 피난시오(El financiero)'에 따르면 2023년 3월 8일 국제 여성의 날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전국에서 시위를 벌였고 여성 살해에 대한 정의 요구와 더불어 노동 격차 감소와 기회균등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일어났다. 이들은 거리에서의 시위를 포함해 다양한 미디어를 통한 시위를 진행했다.⁴⁸

멕시코 여성운동에서 네트워크 운동 전략은 온라인 공간에 여성운동이

⁴⁷ 온라인 설문조사 3번 항목에 대한 답변18의 답변.

⁴⁸

<https://www.elfinanciero.com.mx/nacional/2023/03/09/8m-dia-de-la-mujer-miles-de-mujeres-exigen-un-freno-a-la-violencia-machista-en-mexico/> 접속일: 2023.10.14

머무르지 않고 점점 대규모 행진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만들어낸다. 그 예로 세 가지 해시태그 운동을 들 수 있다. 먼저, 2016년 4월 멕시코에서는 여성의 안전과 인권을 위한 새로운 운동이 시작되었다. #VivasNosqueremos 운동은 마치스모 폭력에 맞서는 전국 동원의 운동으로서, 여성들은 이 운동을 통해 자신들의 존엄성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모여들었다. 이는 멕시코 페미니즘 전성기의 시작으로 여겨지며, 여성들은 이 운동을 통해 사회적인 변화를 요구하고자 했다. #VivasNosqueremos 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여성들의 단결력을 강화시켰다. 이 운동은 여성인권을 강조하고 성 평등을 요구하는 새로운 페미니즘의 흐름을 만들어냈다. 또한, 이 운동은 여성들 간의 연대감을 촉진하고 정부의 미흡한 대응에 대한 비판을 독려했다.

로비라 산초와 모랄레스(Rovira Sancho G., Morales i Gras J., 2023)는 2019년 3월 23일부터 4월 중순까지 작가 에르손 바로나(Herson Barona)이 여성에 대한 폭력을 가했다는 고발로 시작되어 다양한 직업군에서 각 100여 명이 넘는 사람에 대한 고발로 이어진 미투 운동을 통한 디지털 직접 행동이 있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같은 해 8월 경찰에 의한 2건의 강간 사건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요구하는 #NoMeCuidanMeViolan 운동이 등장했다. 이 운동은 당해 8월 17세 소녀가 순찰차에서 경찰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사건과, 16세 소녀가 박물관에서 경찰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사건에 의해 촉발되었다. 해당 사건 용의자들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자 이는 거리 시위로 확산되었고 8월 12일 '분홍 반짝이(Brillantina)' 사건⁴⁹이 발생한다.

⁴⁹ 2019년 8월 12일 시위대가 경찰에 의한 강간 사건에 대한 정당한 처벌 요구를 하며 경찰서장인 헤수스 오르타 마르티네스(Jesus Orta Martinez)의 머리에 분홍색 반짝이를

앞선 성폭행 사건들에 대한 미흡한 대처와는 달리 ‘분홍 반짝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당국의 강경 조치 입장이 발표되며 페미니스트들의 분노가 촉발되었고 전국 32개 도시에서의 #Brillanteada 시위로 이어진다. 8월 16일, 여성들은 예고된 시위를 통해 거리로 나가고, 동시에 분노와 불만을 표출하는 데 사용된 해시태그들은 더욱 확산된다. 네트워크 상에서의 연결이 거리에서의 직접적인 행동을 이끌어 낸 것이다. 또한, 이때 여성들은 SNS 상에서 친환경 반짝이를 만드는 방법을 공유하는 등 시위 과정에서 같은 상징물을 공유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운동 참여자들 사이에 전국적인 연대감이 조성되기도 했다.

2020년 3월에는 두 건의 여성혐오 살해 사건으로 인하여 멕시코 여성 총파업이 촉발되었다. 먼저, 2월 8일 40대 동거남에 의해 살해된 20대 여성 잉그리드 에스카미야(Ingrid Escamilla)의 시신 사진이 유출되어 SNS 상에서 소비되며 그에 대한 저항으로 #IngridEscamilla(Fotos) 운동이 확산되었다. 잉그리드의 이름을 단 해시태그에 풍경, 초상화 등의 아름다운 이미지를 게시하여 시신 사진의 확산을 막은 것이다. 그 며칠 후인 2월 15일 7세 여아가 엄마의 지인 부부에게 납치된 후 성적 학대 및 살해되어 유기된 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요구하며 #JusticiaParaFatima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2019년 초 미투 운동이 주로 인터넷에서만 이루어진 것과 달리 이 두 해시태그 운동은 점점 현실 세계에서의 직접 운동을 촉발했다.

이는 2020년 여성의 날 다음 날인 3월 9일 이루어진 국가적 여성 파업이다. 당시 여성의 날이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월요일인 3월 9일이

던지고 해당 영상이 소셜 네트워크를 타고 확산되었으며 이후 이에 대하여 정부에서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을 발표하여 논란을 만든 사건.

파업 날짜가 되었다. 이 운동은 베라크루즈의 여성운동 단체 부르하스 델 마르(Brujas del Mar)가 주도한 파업으로 일상생활에서 여성이 사라짐을 통해 여성 살해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고 여성들의 중요성을 깨우치려는 의미를 가진다.⁵⁰ 이들이 집단행동에 자원을 동원하기 위해 사용한 홍보 매체는 트위터와 페이스북이다. 이들은 2020년 2월 18일에 처음 ‘우리 없는 날’을 선언하고 설명하는 게시글을 올렸다. 이 정보를 접한 후 여성 운동가들은 이러한 전례 없는 시위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온라인 캠페인을 벌였다. 단순히 파업 일정만을 홍보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여 그들이 파업의 의미를 알고 참가자들이 여성운동 활동을 더욱 폭넓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Alonso, Ortiz & Buscemi., 2022).

소셜 미디어를 통해 단순히 일시적인 자원을 동원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페미니즘 주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확산함으로써 여성 문제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제공한 것이다. 이를 통해 여성운동은 여러 차원에서 활성화되며 사회적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설문조사 응답자들 중 일부는 여성들이 경험하는 문제에 대한 공개가 일부 사람들에게는 불편한 정보가 될 수 있지만, 이러한 정보 공유가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언급한다. 이러한 노출은 현실적인 여성 경험과 문제를 다루며, 이를 통해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증가시키고 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는 여성운동의 목표와 일치하며, 여성의 권리와 평등에 대한 대화를

⁵⁰ Efectos en la actividad economica de “Un día sin nosotras” (2020, marzo 6). BBVA Research. Recuperado de: <https://www.bbva.com/publicaciones/mexico-efectos-en-la-actividad-economica-de-un-diasin-nosotras/#:~:text=Puntos%20clave%3A,labores%20dom%C3%A9sticas%20y%20de%20cuidados>.

활성화시키고 확대하는 데 기여한다.

‘우리 없는 날’은 트위터 계정에서의 제안으로 시작되어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은행 BBVA의 멕시코 경제 관측소에서는 해당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유급 경제활동 232억 페소, 무급 가사노동과 돌봄노동 113억 7100만 페소 등 총 345억 7100만 페소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그리고 페미니스트 간의 협력을 벗어나 전국적인 여성 파업을 지지하는 공공기관들과 민간 기관들의 동참을 이끌어냈다. 연방 정부 기관부터, 주 정부 기관, 교육 기관, 사기업까지 130여 개 이상의 기관들이 여성 인력들이 불이익 없이 파업에 참여할 것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⁵¹

이렇게 지속적인 운동의 영향으로 2020년에 정치적 진전이 생겨났다. 제도적 변화의 초석이라고 볼 수 있는 Recomendacion General 43/2020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국가 위원회는 매체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알려진 다양한 사실들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멕시코 공화국 내에서 여러 지역에서 성평등에 반대하는 시위가 개최되었는데, 이러한 시위에 시민들이 참여하여 성평등을 위한 시각을 제시했다. ... 이러한 사건들을 모두 인지하고, 이들 시위를 알리는 데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다.⁵²

이러한 언급은 멕시코에서 여성의 인권을 위한 제도가 만들어지기까지 여성운동을 통한 인터넷상에서의 아카이빙과 거리에서의 시위가 얼마나

51

<https://www.eleconomista.com.mx/politica/Paro-nacional-de-mujeres-2020-qui-nes-participan-20200221-0068.html>

52 CNDH. (2020). Recomendacion General 43/2020 8페이지 직접 인용.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려준다.

이 권고사항은 취약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폭력 예방과 인권보호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멕시코에서 여전히 심각한 문제이며, 권고사항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기전과 이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시된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가와 지방정부, 법 집행 기관, 사회기관 그리고 민간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하여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는 강조가 있으며, 이들이 선제적이고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취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Recomendacion General 43/2020은 성차별과 여성혐오 폭력을 예방하고 퇴치하기 위한 필요한 다양한 법적, 정책적, 사회적 조치들을 권고한다. 이러한 권고사항을 지키도록 요구되는 인물들은 주요 기관 및 당국 대표자들이다. 이들은 국가 안전, 보건, 교육, 법 집행, 인권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책임을 지고 있으며, 멕시코의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들의 역할은 멕시코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므로 이들의 역할과 협력은 멕시코 정부의 다양한 부문에서 전략적인 계획과 장기적인 비전을 구현하는 데 중요하다. 따라서 이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인권 침해 예방과 대처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멕시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한다.

Recomendacion General 43/2020발표 이후 멕시코 정부가 여성 보호를 위한 다양한 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네 가지 사례가 있다. 우선 Ley General de Acceso de las

Mujeres a una Vida Libre de Violencia (여성들이 폭력에서 자유로운 삶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의 개정이 있다. 2007년 여성 폭력 예방을 위해 제정된 이 법률은 권고사항에 따라 2020년 11월 26일 여성들이 직면하는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방지하고 대처하는 조치들을 추가했다. 다음으로는 2020년 12월 1일 개정된 Código Penal Federal이 있는데 이 개정안은 여성들에 대한 가정 폭력, 성적 폭력, 인신매매 등의 폭력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마련하고, 신고자의 보호와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다. '강간'의 범위를 확대하여 처벌 대상 범주를 상세히 규정하였으며, '변태적인 성행위'와 '인터넷을 통한 성적 자극'을 처벌 대상 범주에 포함시켰다. 또한, 인신매매와 같은 성적 착취 행위의 경우, 처벌 대상을 확대하고, 피해자들의 보호를 강화하였다.

인터넷상에서의 성적 폭력에 대한 법률도 마련되었는데 2020년 11월 26일, 멕시코 국회에서 승인된 Ley Olimpia가 그것이다. 이 법률은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폭력이나 성적 착취, 디지털적 성적 차별 등으로 인한 영상, 음성, 사진 등의 불법적인 녹화 및 유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벌금과 징역 등의 처벌을 부과한다. 그리고 성적 폭력 피해자들이 자신의 영상, 음성, 사진 등의 불법적 녹화 및 유포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처벌 및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사용자들에게 온라인상에서의 성적 폭력 및 차별 등에 대한 교육과 함께, 신고 채널을 마련할 의무가 생겼다. 법무부는 신속한 수사, 처벌을 위한 전문 기관과 인력을 마련하여, 범죄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Alerta de Genero 시스템이 있다. 이 시스템은 2007년에

멕시코 정부가 성 평등과 여성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만들었으며, 이후 매년 많은 지역에서 운영되어 왔다. 2020년 11월에 멕시코 연방정부는 이 시스템의 개선을 발표했는데, 이 개선 사항은 11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개선을 통해 멕시코는 여성 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여성들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낙태의 비범죄화와 공공 보건 서비스로의 편입이라는 가시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낙태 논의와 달리 여성혐오 폭력은 법적인 변화로만 해결할 수 없다. 여성혐오 폭력 문제는 단순히 법적 해결책이 아니라 사회학적, 문화학적, 그리고 경제학적 영역에서의 복합적 개입이 필수불가결한 부분이다. 교육과 인식의 개선을 통해 의식 수준을 변화시키고 여성을 다양한 폭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과 안전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이러한 변화가 동반되어야 여성들의 요구가 정동 소외자의 기존 질서에 대한 위협과 부정적인 감정 표출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요구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다.

3. 한계

네트워크화된 운동 전략은 현대 사회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현상 중 하나지만 이러한 접근 방식은 몇 가지 한계를 안고 있다. 모든 부문의 네트워크화된 운동 전략이 지적받는 문제점이 멕시코의 여성운동 사례에서도 나타난다.

첫째, 부정확한 정보의 확산은 불가피한 문제 중 하나로 여겨진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빠르게 정보가 공유되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퍼져나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운동의 목표와 의도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는 앞선 접근성 문제와 연결되기도 하는데 네트워크화된 방식에서 정보의 신뢰성은 접근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멕시코와 같이 인터넷 접근성에 제한이 있는 지역에서는 정보의 제한된 접근성으로 인해 정확하지 않거나 왜곡된 정보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로 인해 잘못된 정보나 편향된 정보가 확산되면서 ‘에코 챔버(Echo Chamber)’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에코 챔버는 한정된 정보 공급원으로부터 비슷한 정보가 반복적으로 생산되고 전달되는 현상을 나타내며, 이는 정보의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거짓 고발 혹은 무고한 사람에 대한 피해도 발생할 수 있으며, 무의미한 주제로 주의를 분산시키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예시로 2019년 4월 1일 한 록밴드의 멤버였던 아르만도 베가(Armando Vega Gil)가 13세 때 여성을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고발을 받은 후 자살한 사건이 있다. 이 사건으로 소셜 미디어 상에서의 고발이 무죄 추정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주장되었다.

둘째로 네트워크화된 운동 전략은 반대 의견에서의 감정적 응집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대립성이 강한 주제에 대하여 논의할 때, 운동

참여자들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반대 의견에 대한 강한 반발을 보일 수 있다. 이러한 감정적인 충돌은 운동의 목표를 향한 진전을 방해하고, 때로는 사회적인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기존의 고발 운동에 대한 운동이 발생하여 운동가들에 대한 위협이 생기기도 했다(Rovira Sancho G., Morales i Gras J., 2023). 에코 챔버 현상이 악의적인 정보나 선정적인 목적을 가진 정보의 확산에 기여할 경우 페미니스트 운동 내에서 운동가들에 대한 공격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내포한다. 가르시아 곤잘레스(Garcia González, 2021)의 연구에서도 그 위험성이 드러난다. 여성운동 참여자는 자신들이 온라인에 게시한 게시물을 통해 자신들의 신상이 노출되었으며 이로 인해 폭행 예고, 해고 요구 등의 협박을 받게 되었다고 이야기한다.

마지막으로 해시태그 운동의 경우, 특정 사건이 발생하면 운동이 사건 중심으로 발전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운동은 종종 자발적인 참여보다는 특정 사건에 대한 반응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는 운동이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주류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게 돕기도 하지만, 동시에 일시적인 현상으로 머무르거나, 사건에 대한 관심이 사라짐에 따라 운동의 활동성이 약화되게 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진다. 운동이 특정 사건에 반응하여 시작될 경우, 처음에는 많은 참여와 공감을 얻을 수 있으나 감정적 응집이 사라지면 운동의 에너지와 지속성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운동 참여자들이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을 구축하는 데 어려움을 주며, 운동이 더 근본적인 사회적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대화와 조치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근간을 제공하지 않을 위험을 가진다.

이러한 갈등은 여성운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촉발하여 여성들을 다시 정동 소외자로 만들고 다른 사회 구성원들과의 접촉을 가로막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디지털 격차로 인한 편향된 이론의 전파와 운동가들의 전략 활용도 저하 문제가 유발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뢰성 있는 정보 소스를 식별하고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네트워크화된 방식 내에서 정보 검증 및 정정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다. 또한 운동이 자체적으로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율성과 지속가능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건 중심의 의존을 최소화하고, 보다 광범위하고 고차원적인 목표에 기반한 운동 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한계를 가진 네트워크화된 운동 전략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네트워크는 여성운동을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것이다. 새로운 전략이 여성운동에 있어 절대적으로 성공적일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폰도 세미야의 마리아나는 “믿어지기 어려우시겠지만, 우리는 이를 논의하고 있다. 인터넷이 도움되는 것은 전략보다는 도구일 것이라고 생각한다(no si el Internet ayudando es una herramienta más que una estrategia este)⁵³”고 말했다. 소셜틱의 베아트리스 또한 디지털 플랫폼과 소셜 미디어의 사용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그것이 “도구(tools)”라고 언급한다. 멕시코의 여성운동에서 인터넷의 활용이 가지는 한계점이 많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직접행동이 가장 중요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도구로서 네트워크화된 운동 전략을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네트워크화된 운동 전략이 여성운동을 살펴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니다. 랜디 쇼우(Randy Shaw, 2019)는 여전히 너무 적은 사회운동 참여자들이 뉴미디어 도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약점이라는 것과 동시에

⁵³ 2023년 8월 23일 폰도 세미야스 사무실에서 진행한 인터뷰.

그들이 뉴미디어 도구를 사용할 때 이것이 단지 수단임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부분은 인터뷰에 참여한 모든 운동가들이 강조한 것과 같다. 멕시코 여성운동 진영에서 새로운 운동 전략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새로운 전략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VI. 결론

멕시코의 여성운동은 100여 년의 역사를 거쳐오며 멕시코 여성들의 특성을 보여준다. 멕시코 여성운동은 멕시코 혁명 이후부터 시작되어 여러 시기를 거치며 다양한 경향을 보여왔다. 초기에 여성운동 참여자들은 사적 영역에서의 권리 추구를 공적 영역에서의 권리 추구로 확장하였다. 68혁명 이후에는 서구 페미니즘 관점을 중심으로 신페미니스트들의 중산층 여성 교육과 계몽이 목표가 되었다. 이후 여성운동 의제의 다양화와 기술 및 매체의 발달로 네트워크화된 운동 전략 중심 행동이 중요해졌다.

멕시코 여성운동을 주도하는 근본적인 불평등 요인은 가톨릭 문화의 영향으로 사회적 지위와 역할, 여성혐오 폭력, 낙태 비범죄화 문제 등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멕시코 여성들은 거주 지역, 인종, 경제적 역량, 교육 정도에 따라 위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차별은 멕시코 여성들이 겪는 문제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멕시코 여성운동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운동 전략을 활용해왔다. 초기에는 풀뿌리 활동으로 시작하여, 1980년대에는 NGO의 형태로 발전했다. 자금 지원과 지속적인 여성운동 참여를 독려하여 다른 여성들에게 교육을 제공할 수 있었다. 이 시기에는 주로 전통적인 소통 매체를 활용하였다. 최근에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네트워크화된 운동 전략이 부상하고 있다. 멕시코 여성운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성폭력, 안전 문제 등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하고, 국제적인 연대를 형성하며 여성 안전 문제에 대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촉구한다.

네트워크화된 운동 전략은 여성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서로

연결되고, 정보를 공유하며, 감정적인 응집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2016년 이후 국제적으로 다양한 해시태그 운동들로 대표되는 네트워크화된 운동 전략이 낙태 비범죄화 논의를 중심으로 국제적인 연대를 만들어냈다. 멕시코에서도 여성들은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을 활용하여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를 지원하며,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했다. 또한, 네트워크화된 운동 전략은 직접적인 행동의 동원도 도왔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네트워크화된 운동은 기존 미디어의 제약을 우회하고, 직접적이고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여 감정적 응집 이상의 성과를 만들어낸다. 신속한 정보 전달과 네트워크를 통한 광범위한 자원 동원을 가능하게 만들어 실제 세계에서의 운동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그러나 네트워크화된 운동 전략의 한계도 발견된다. 공동의 목표 설정이 어려워져 서로 다른 의견이 충돌하고 감정의 폭발이 나타날 때는 그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고 반발 의견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네트워크화된 운동 방법이 사회운동에 효과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포괄적이고 상호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목표와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악의적인 정보의 확산으로 인해 피해자나 운동 참여자들에 대한 공격 가능성이 생기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효과적으로 네트워크화된 운동 전략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정보의 확보와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의 정보 검증 및 정정 메커니즘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멕시코 여성운동의 역사적 과정과 각 시기별 여성운동의 특징들을 분석하여, 멕시코의 사회문화사를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새롭게 조명하였다. 이는 멕시코 여성운동이 멕시코 사회에서 여성들이 겪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멕시코의

사회문화사를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새롭게 조명함으로써 여성들의 권리와 역할을 인식하고 존중하는 사회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멕시코의 여성운동은 네트워크화된 전략을 채택함으로써 사회적 변화의 길을 열어놓았다. 소셜 미디어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연결은 여성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더욱 강력하게 표현할 수 있는 도구로 작용하고, 해시태그 운동은 세계적인 연대를 통해 국가적인 문제를 넘어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했다. 본 연구를 통해 이러한 운동 전략이 제도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공동의 목표와 상호 동의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여성운동을 벗어난 다른 운동에서도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조율하고, 정확하고 포괄적인 정보를 공유하며, 상호 간의 이해와 존중을 기반으로 공동의 목표를 세우는 과정에서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함께 발전하면, 네트워크화된 운동은 전략은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김상애, 김은주, 유민석, 이승준, 이지영, 정유진. (2019). 페미니즘 고전을 찾아서. 대한민국: 에디투스.

랜디 쇼우.(2019). 세상을 바꾸는 사회운동전략. 대한민국: 인간과복지.

로즈마리 페트넘 톱, 티나 페르난데스 보츠. (2019). 페미니즘: 교차하는 관점들. 대한민국: 학이시습.

멜리사 그레그, 그레고리, 시그위스 편저. 최성희 김지영, 박혜정 역. (2015). 정동 이론(아프꿈총서 2). 대한민국: 갈무리.

마누엘 카스텔. 김양욱 역. 분노와 희망의 네트워크. (2015). 대한민국: 한울아카데미.

브루노 라투르 외 지음 ; 홍성욱 엮음.(2018). 인간 사물 동맹. 대한민국: 이음.

아이린 파드빅, 바버라 레스킨 지음; 황성원 옮김. 유리천장 아래 여자들. (2021). 대한민국: 아날로그(글담).

조세핀 도노번 지음; 김익두, 이월영 옮김. (1993). 페미니즘 이론. 대한민국: 문예출판사.

주디스 버틀러 지음 ; 김웅산, 양효실 옮김. (2020). 연대하는 신체들과 거리의 정치. 대한민국: 창비.

프루던스 체임벌린 지음 ; 김은주, 강은교, 김상애, 허주영 옮김. (2021). 제4물결 페미니즘: 정동적 시간성. 대한민국: 에디투스.

Campante, F, R Durante and A Tesei (eds) (2023). 'The Political Economy of Social Media', 파리, 런던: CEPR Press.

Castellanos, L. (2021). La marcha del #TerremotoFeminista. 멕시코: Penguin Random House Grupo Editorial México.

Roldán, N. et al. (2022). Mexicanas en pie de lucha: Pese al gobierno machista, las violencias y el patriarcado. 스페인: PRH Grupo Editorial.

Simone Bohn, Charmain Levy. (2021). Twenty-First-Century Feminismos: Women's Movements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n.d.). 영국: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논문

강경희.(2008).라틴아메리카 제2기 여성운동의 특징: 멕시코와 아르헨티나의 확대여성운동을 중심으로.세계지역연구논총,26(3),467-492.

—. (2009). 멕시코의 페미니스트운동과 낙태정책 : 2007년 멕시코시티 낙태합법화의 의미. 라틴아메리카연구, 22(2), 179-205

김용철.(2008).정보화시대의 사회운동.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5(1), 5-42.

김은중.(2005). 라틴아메리카의 사회변동과 사회운동. 라틴아메리카연구, 18(3), 29-54.

김희강.(2006).서구 페미니즘 이론의 동향과 쟁점, 글로벌 맥락에서의 한국 페미니즘에 미치는 의미.21세기정치학회보,16(2),27-50.

나영. (2022). 젠더 성적 통제는 어떻게 저항의 불씨가 되는가 : 강제히잡 착용에 저항하는 이란 시위의 또 다른 장면들. 황해문화, 339-345.

마르셀라 알레한드라 파라, 정승희.(2012).라틴아메리카 현 사회운동의 특징.라틴아메리카이슈,4(),101-134.

문성훈. (2007). 「새로운 주체(대중)의 등장과 사회운동의 방향」에 대한 논평. 철학연구, 102(),95-101.

박소정.(2020).#해시태그로_말하는_여성들.문학과사회, 33(4), 23-38.

박우룡. (2008). 서양의 '새로운 사회 운동'의 역사. 역사학보, 200(), 165-200.

_____. (2017). 세기전환기 반자본주의 운동과 신 사회운동의 딜레마 -탈물질주의적 가치관과 문화주의 이론의 한계-. 서양사론, 134(0), 73-115.

박윤주. (2020). 사회운동론의 관점에서 본 민주화 운동의 성공: 멕시코 68 민주화 운동과 5·18 민주화 운동을 중심으로. 라틴아메리카연구, 33(3), 1-30.

_____. (2021). 니 우나 메노스 (Ni Una Menos)에서 니냐스 노 마드레스 (Ninas, no Madres)까지: 사회운동이론의 틀 정렬 (Frame Alignment)을 통해 본 아르헨티나 낙태 합법화 운동. 스페인어문학, (98), 173-201.

_____. (2022). 멕시코 북부 국경지역의 여성혐오 살해(Femicide)와 지배의 매트릭스. 라틴아메리카연구, 35(2), 33-57.

서영표. (2013). 사회운동이론 다시 생각하기: 유물론적 분석과 지식구성의 정치. 민주주의와 인권, (13), 303-346.

신희선. (2005). 디지털 시대와 사이버 페미니즘. 아시아여성연구, 44(1), 226-267.

안드레아 다트리, 정승희. (2012). 라틴아메리카 페미니즘 투쟁의 10년 (2000~2010). 라틴아메리카이슈, 4(), 157-173.

윤성이. (2009). 인터넷과 초국적 사회운동. 사회이론, (36), 3-30.

이난희. (2001). 『페미니즘과 종교』. 한국여성신학, (45), 175-182.

이세라. (2020). 한국의 여성주의 운동 과정에 표상된 분열의 담론 탐색 (Doctoral dissertation, 한양대학교).

이순주. (2003). 신자유주의 하에서의 여성정책과 여성운동. 라틴아메리카연구, 16(2), 169-197.

_____. (2010). 여성 정치리더 등장을 통해 본 라틴아메리카 여성정체성의 변화. 코기토, (67), 55-79.

_____. (2020). 라틴아메리카에서 '페미니시디오(Feminicidio)'의 정치적 함의. 이베로아메리카, 22(2), 59-98.

이승원. (2023). 시민권력 vs. 프랑켄슈타인 권력 : 『시민권력은 세상

을 어떻게 바꾸는가 - 커먼즈, 사회적경제, 자치와 직접민주주의를 통한 국가와 정치의 전환』 존 레스타키스 지음, 번역협동조합·박대진·남선옥·유은희 옮김, 착한책가게, 2022. 시민과세계, 183-1911

이원태. (2010). 소셜미디어에서 온라인 정치 담론의 특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항우. (2022). 타르드, 정동 그리고 소셜 미디어의 네트워크 효과. 경제와사회, 266-299, 10.18207/criso.2022.136.266

이행봉.(1994).신사회운동과 시민사회.지역사회연구,2(),121-156.

장석준.(2016).1987년 이후 한국 사회운동의 역사적 궤적과 현재의 성찰.시민과세계,(),57-84.

전윤정. (2020). 성·재생산권으로써 낙태권리를 위하여 - 낙태제도 변동의 쟁점과 방향. 페미니즘 연구, 20(1), 3-36.

정상희. (2018). 중남미 도시정책에 반영되어 있는 젠더주류화 전략에 대한 고찰: 멕시코시티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개발협력연구, 10(4), 73-89.

_____. (2020).멕시코 도시정책의 젠더주류화 전략분석. 이베로아메리카, 22(1), 31-72.

정수복. (1993). 새로운 사회운동과 참여 민주주의. 대한민국: 문학과 지성사.

정태석.(2006).시민사회와 사회운동의 역사에서 유럽과 한국의 유사성과 차이.경제와사회,(),125-147.

정호윤. (2022). 무엇이 브라질의 젠더쿼터법을 비효율적으로 만드는가?. 세계지역연구논총, 40, 80-109.

조희연. (2000). 민주주의 이행과 제도정치, 민중정치, 시민정치. 경제와사회, 46, 170-198.

지은희.(2002).내부로부터 본 여성운동.사회이론,(22),99-150.

최병두.(1993).환경운동의 철학적 기초와 전망: 마르크스주의와 신사회운동론의 재검토.이론,(),235-256.

최윤국. (2008). 멕시코의 ‘아텐코(Atenco)’ 사회운동의 역사성과 의의. *스페인어문학*, 48, 341-360.

황경진, 이재학. (2023). 빅데이터를 통해 본 멕시코 내 혐오 표현과 갈등. *중남미연구*, 42(2), 1-26, 10.17855/jlas.2023.5.42.2.1

홍미희. (2006). ‘진보적’ 여성운동의 조직적 특성. *페미니즘연구*, (6), 169-207.

홍태희. (2009). 젠더의 역사적 구성: 성별관계와 여성경제사. *여성경제연구*, 6(2), 85-109.

_____. (2018). 잘못된 질문은 잘못된 대답을, 잘못된 대답은 잘못된 세상을 만든다! Julie A. Nelson(2017), *Gender and Risk-Taking: Economics, Evidence, and Why the Answer Matters*. *한국여성학*, 34(1), 205-215.

_____. (2019). 경제에 미친 젠더의 영향. *한국여성학*, 35(1), 283-314.

Alonso, D. M. A., Ortiz, D. V. M., & Buscemi, E. (2022). Un día sin nosotras: the 2020 women’s strike against gender-based violence in México between intersectionality and activism. *Culture e Studi del Sociale*, 7(2), 268-276.

Albornoz Pollmann, L., & Barcia Lehmann, R. (2022). El neofeminismo, o los nuevos feminismos. *Revista de ciencias sociales (Valparaiso)*, (81), 177-212.

Alvarez Enriquez, L. (2020). El movimiento feminista en México en el siglo XXI: juventud, radicalidad y violencia. *Revista mexicana de ciencias políticas y sociales*, 65(240), 147-175.

Aspeitia, L. E. L. (2015). Nomads of the present: Social movements and individual needs in contemporary society de Alberto Melucci. *Sociologica México*, (27), 229-233.

Bartra, E. (2021). Por las veredas del neofeminismo durante

medio siglo. *Polis*, 17(2), 125-146.

Cerva Cerna, D. (2020). La protesta feminista en México. La misoginia en el discurso institucional y en las redes sociodigitales. *Revista mexicana de ciencias políticas y sociales*, 65(240), 177-205.

Diani, M. (2000). Social movement networks virtual and real. *Information, communication & society*, 3(3), 386-401.

García-González, L. Angeles. (2021). Movimientos feministas en México: Prácticas comunicativas digitales y riesgos. *Virtualis*, 12(23), 44 - 66.

García-González, L. A., & Bailey Guedes, O. (2020). La protesta feminista #8M 2020 en México a través de la participación de comentarios en YouTube. *Conexión*, (14), 103-128.

García, R. G., & Treré, E. (2014). The# YoSoy132 movement and the struggle for media democratization in México. *Convergence*, 20(4), 496-510.

Kräh, L. M. (2021). Social Media and the Mexican Feminist Movement: Leading or Impeding the Fight Against Gender-Based Violence? (Bachelor's thesis, University of Twente).

Morales, L. (2022). A Comparative Analysis of Two Latin American Anti-Femicide Movements: # NiUnaMenos and # UnDiaSinNosotras.

Pfleger, S. (2021). Fuertes, libres, rebeldes. Hacia una identidad más agentiva del movimiento feminista en México. *Millcayac: Revista Digital de Ciencias Sociales*, 8(14), 325-348.

Laudano, C. (2017). Movilizaciones# NiUnaMenos y# VivasNosQueremos en Argentina. Entre el activismo digital y#

ElFeminismoLoHizo. Seminario Internacional Fazendo Gênero, 11.

_____. (2018). Aborto y redes: el debate por# AbortoLegal. Sociales en debate, (14).

Rovira Sancho G. y Morales i Gras J. (2023). Idus de marzo en México. La acción directa en las redes y en las calles de las multitudes conectadas feministas. Teknokultura. Revista de Cultura Digital y Movimientos Sociales, 20(1), 11-24.

Serret, E. (2000). El feminismo mexicano de cara al siglo XXI. El cotidiano, 16(100), 42-51.

Sreberny, A. (2015). Women's digital activism in a changing Middle East. International Journal of Middle East Studies, 47(2), 357-361.

Tabbush, C., & Friedman, E. J. (2020). Feminist activism confronts COVID-19. Feminist Studies, 46(3), 629-638.

Treré, E. (2013). # YoSoy132: la experiencia de los nuevos movimientos sociales en México y el papel de las redes sociales desde una perspectiva crítica. Educación social: Revista de intervención socioeducativa.

학위논문

허건. (2015). 집단적 사회운동에서 네트워크 사회운동으로의 변화에 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국가 보고서

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 y Geografía (México). (2017). "Mujeres y hombres en México 2017"

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 y Geografía (México).
(2018). "Mujeres y hombres en México 2018"

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 y Geografía (México).
(2019). "Mujeres y hombres en México 2019"

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 y Geografía (México).
(2021). Violencia contra las mujeres en México:
<https://www.inegi.org.mx/tablerosestadisticos/vcmm/>

인터넷사이트

<https://www.inegi.org.mx/tablerosestadisticos/vcmm/> -
Violencia contra las mujeres en México (INEGI)

<http://www.genderarchive.or.kr/exhibits/show/beijing/ex8-p1>
- 양성평등아카이브 여기모아



The Evolution of the Women's Movement in México
-Focus on Networked Movement Strategies-

Kim Onyu

Department of Global Area Study, Th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women's movement in Mexico has a long history. Despite increased political representation through sustained efforts, socio-cultural issues persist. These challenges are closely tied to the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Mexican women. The movement has evolved under the influence of Mexico's Catholic cultural dependence and the hierarchical structure of women. Initially, enlightenment targeted certain social strata through traditional media, but in recent times, it aims to disseminate information to a broader audience and foster solidarity among various organizations through online platforms such as social media.

Since 2016, explosive hashtag movements have formed a networked strategy, fostering international solidarity and, domestically, enabling women to share experiences of sexual

violence and establish subversive solidarity using social networking platforms. Through this, the women's movement in Mexico has achieved emotional cohesion among marginalized groups and mobilized direct action in the real world. Networked movement strategies utilizing online platforms provide a new political space in women's discourse with the rapid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and offering a hyperlocal, hypertemporal dimension. However, despite the achievements of this new strategy, it poses challenges such as difficulty in goal setting, potential conflicts, emotional outbursts, and the spread of misinformation and dissenting opinions.

Despite the acknowledged issues common to such movements, Mexico is progressing towards decriminalizing abortion and legal improvements addressing violence against women due to the success of new movement strategies. This thesis examines the history of the women's movement in Mexico, scrutinizes the status of Mexican women, and explores how changes in social movement strategies have tangible impacts on society. While acknowledging the achievements brought about by the evolution in strategies, the paper emphasizes the ongoing need for societal awareness improvement and continuous efforts such as legal reevaluation. Nonetheless, the confirmation of the potential effectiveness of social movement strategy changes due to shifts in communication media offers hope for societal change.

부록 1. 현지조사 일정표

방문 일정 및 활동 내용		
일자	방문 기관	활동 내용
1주차 08.11 - 08.20		Aborto Legal México 설립자와 면담 진행
2주차 08.21 - 08.27	여성 박물관, P o n d o Semillas, Socialtic	멕시코 여성사 및 여성운동 역사 자료 수집, Pondo Semillas와 Socialtic 방문 및 면담 진행
3주차 08.28 - 09.03	J u a r e s 1 4 번 가, 기억과 관용 박물관, Más sueños	Anti Monumenta 방문 및 페미니즘 활동 조사, 멕시코 여성 대상 폭력 자료 수집, Más sueños 방문 및 면담 진행

부록 2. 인터뷰 대상자

1. Fanny González: Aborto Legal México의 설립자
2. Diana Medina: Pondo Semillas의 분석 및 제도 강화 코디네이터
3. Marina Freitez: Pondo Semillas의 모니터링 및 평가 책임자
4. Beatriz: Socialtic의 활동가이자 페미니스트
5. Perla: Más sueños의 활동가

부록 3: 대면 인터뷰 사전 질문지

Sección 1: Estrategias Previas del Movimiento

1. ¿Cuáles fueron las principales estrategias utilizadas por su organización en el movimiento feminista previo?
2. ¿Cuál era el objetivo de las estrategias anteriores y cómo se intentaba lograr ese objetivo?
3. ¿Cuáles fueron los aspectos exitosos y los desafíos de las estrategias anteriores del movimiento?
4. ¿Qué dificultades se encontraron al tratar de adaptar las estrategias previas a los cambios sociales y políticos actuales?

Sección 2: Estrategias Actuales del Movimiento

1. ¿Desde cuándo la organización adoptó un enfoque o estrategias nuevas en el movimiento feminista?
2. ¿Cuál es el objetivo de las estrategias actuales del movimiento y cómo se intenta lograr ese objetivo?
3. ¿Cuál es el factor más importante considerado en las estrategias actuales del movimiento?
4. Explique cómo las estrategias actuales del movimiento reflejan las características del movimiento feminista en México.

Sección 3: Impacto de las Estrategias de Movimiento en Red

1. ¿Cuándo cree que comenzó a utilizarse en México el uso de plataformas digitales y redes sociales en las estrategias del movimiento feminista?

2. ¿Cómo han influido las plataformas digitales y las redes sociales en las estrategias del movimiento feminista? Proporcione ejemplos.

3. ¿Cree que las estrategias de movimiento en red han tenido un impacto efectivo en el desarrollo y el éxito del movimiento feminista en México? Si es así, explique por qué.

Sección 4: Cooperación y Solidaridad Internacional

1. ¿Cómo se lleva a cabo la colaboración o solidaridad con organizaciones feministas de otros países o regiones?

2. ¿Qué problemas u objetivos comparten a nivel internacional y qué estrategias emplean para lograrlos?

Sección 5: El Futuro del Movimiento Feminista

1. ¿Cómo cree que evolucionará el movimiento feminista en México en el futuro? ¿En qué áreas anticipa cambios importantes?

2. En relación con el gobierno, las empresas y la sociedad,

¿cómo deberían evolucionar las estrategias del movimiento feminista?

부록 4: 온라인 설문조사 질문지

1. ¿Cuando se volvía importante la presencia de las redes sociales en el movimiento feminista en México?

멕시코 여성운동에서 네트워크의 존재는 언제 중요해졌는가?

2. ¿Por que cobra importancia la presencia de las redes sociales durante ese periodo? Ejemplos: #yosoy132, #Miprimeracoso, #METOO, pandemia

그 기간 동안 네트워크의 존재가 왜 중요해졌는가?

예: #yosoy132, #나의 첫 번째 괴롭힘, #METOO, COVID 19 팬데믹

3. ¿Cuales son las ventajas de las estrategias de redes sociales en el movimiento feminista en México?

멕시코 여성운동에서 네트워크 전략이 가지는 이점은 무엇입니까?

4. ¿Cuales son las limitaciones de las estrategias de redes sociales en el movimiento feminista en México?

멕시코 여성운동에서 네트워크 전략이 가지는 한계는 무엇입니까?

5. ¿Cual es el aspecto más influyente de las estrategias de redes sociales en el movimiento feminista en México?

멕시코 여성운동에서 네트워크 전략이 가장 영향을 미치는 측면은 무엇입니까?

6. Además, si hay algo más que quieras decir sobre la estrategia de las redes sociales en el movimiento feminista en México, describeme.

추가적으로 멕시코 여성운동에서의 네트워크 전략에 대하여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서술해주세요.

